SYNERGY HWASEUNG

70th HWASEUNG History Book

화승 70주년 히스토리북

Moving to the No.1 Tech company

Moving HWASEUNG

CONTENTS

2023 winter Vol.73

총괄 화승 그룹홍보실 김병호 실장
화승 그룹홍보실 심일욱 선임
화승R&A 김무진(기획팀 사원)
화승소재 임상호(영업관리팀 팀장)
화승T&C 박건국(관리팀 사원)
화승인더스트리 이성수(IR/경영관리팀 매니저)
화승케미칼 유광수(경영지원팀 매니저)
화승네트웍스 김기훈(전략기획팀 선임)
베트남 화승비나 정영섭 부장
미국 화승코퍼레이션 ARHQ 최일영 책임
중국 화승코퍼레이션 CRHQ 문지훈 선임

2023년 12월 30일 발행(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연제, 바00003
신고일자 2016년 8월 30일
발행인 현지호 **편집인** 김정식
기획·진행 화승 그룹홍보실 김병호·심일욱
편집·디자인 오즈커뮤니케이션(02-515-3681)
인쇄 우일인쇄
펴낸 곳 화승(www.hwaseunggroup.com)
주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연산동)
장천빌딩 화승 그룹홍보실
전화 051-850-7037 **팩스** 051-850-7001
메일 illwook.sim@hscorp.com

04 CEO's Message
화승 100년의 길, 지속 가능한 미래,
함께 만들어 갑시다

HWASEUNG Walking

08 화승, 역사로 보여주다

12 화승, 시작되는 이야기
끈질긴 동력은 고무,
그리고 신발에서 비롯되었다

24 한눈에 담는 70년사

32 화승, 생각의 출처
화승, 떠올려 새기고 그리다

36 화승 성장기록원
화승, 숫자로 말하다

38 70보100보
다시 뛸 결심決心

HWASEUNG Running

42 화승, 제품으로 소통하다

44 화승의 기호들
화승의 변신은, 변화다

46 화승 해외법인 탐방
미국·멕시코 편 &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편

66 화승 프로덕트
화·승·본·색-네 속에 화승 있다

HWASEUNG Driving

74 화승, 사람으로 하나되다

76 70th Congratulation
화승 70주년,
송년인사회로 100년 기업을 열다

88 화승 열정 패밀리
그야말로 마술 같았던,
화승 70주년 양산 빅 이벤트

94 70th 캘린더 포커스 ①
"화승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8 70th 캘린더 포커스 ②
화승 온 가족이 마술에 걸린
어메이징 데이

102 70th 캘린더 포커스 ③
소통왕 영조와 정조,
글과 그림으로 탕평하다

106 70th 캘린더 포커스 ④
최고의 영화들과 함께한,
2023 제32회 부일영화상

HWASEUNG Shooting

110 ESG 화승, 테크기업으로

112 화승 ESG ①
글로벌 ESG의 시작,
내몽골 통료에 생명을 심는
화승엔터프라이즈

116 화승 ESG ②
지역민을 위한 이동식 병원,
무료 의료 차량 지원한
화승인도HSI AUTO

118 화승 ESG ③
편견을 넘어 꿈을 키우고, 그리다

122 HS NEWS

124 슈팅 스타
화승, 100년으로!

화승의 결심이 '화승 70년'을 만들었습니다.

이슬이 모이면 바다를 이루고, 흙이 쌓이면 산이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작고 보잘 게 없지만 정성을 모으고 시간이 쌓이면 크고 위대한 산과 바다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색하지 않게 화승이 70년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고무 근성으로 다시 걷다 보면 찬란한 100년 기업 화승과도 반드시 만날 수 있겠지요. 70년 화승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화승 100년의 길,

지속 가능한 미래,
함께 만들어 갑시다

화승 가족 여러분!
갑진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70주년을 맞은 화승이 100년 기업을 향한 첫 해, 더욱 값진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9년 해외에 근무하는 분들과 함께했던 송년 인사회 이후 '코로나'라는 터널을 지나 70주년을 맞은 2023년 올해 이렇게 다시 모두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회가 새로운 순간입니다.

때론 크고 작은 위기도 있었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은 아무 기업에게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화'의 화승 정신을 통해 우리는 시련을 극복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화승을 만든 원동력은 화승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킨 바로 화승 가족 모두의 헌신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화승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모든 화승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화승 70주년을 맞아 1년 내내 7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전 화승 가족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에서는 크고 작은 이벤트를 통해 리마인드하고, 먼 해외에서도 에스엔에스를 통해 현지 직원들과 70주년의 뜻을 함께 나누는 과정들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앞서 화승 히스토리 영상을 보셨을 테지만, 화승은 1953년 그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하며 대한민국 사업 보국의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없는 길을 만들어 화승 70년의 길을 이어왔습니다.

이 길은 화승의 100년 기업을 향한 중간 지점입니다. 70년의 역사도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지만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혁신 역시, 한순간도 게을리해선 안 됩니다. 화승만의 혁신, 그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 100년 기업의 초석을 새롭게 다져갑시다.

두 부회장이 '인화'라는 경영이념 아래 새로운 비전과 핵심가치, 행동 약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의 존재 가치를 확립해 모든 임직원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부회장과 함께 이 과정을 통해 100년 기업, 1등 테크기업 화승의 큰 그림을 그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중장기 경영 목표가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목표는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성하기 위한 밑그림입니다. 목표 수립에만 그치지 않고 목표 달성으로 화승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힘이 되도록 합시다.

부친인 현수명 선대회장님은 일찍이 기술 중심의 화승을 일구셨습니다. 고무 배합이 전무하던 시절, 김광식이라는 기술자와 함께 같이 밥을 먹으며 한 식구로 화승의 근간이 된 세계적인 고무 기술을 완성하셨습니다. 화승은 국내 최초로 하얀 고무신을 세상에 내놓았고 하이힐 고무신, 케미칼 슈즈 등 혁신의 기술로 최초의 제품들을 선보여 왔습니다. 신발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부품, 첨단 소재, 물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에 대한 도전으로 오늘의 화승 70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업종, 새로운 사업, 새로운 정신 무장으로 화승의 턴어라운드를 실현해야 합니다. 70주년, 올해가 바로 그 턴어라운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았으면 합니다. 화승코퍼레이션 계열의 중국, 미주 법인들은 강력한 모멘텀을 통해 흑자를 만들고, 화승인더스트리 계열은 조직 재정비에 총력을 기울여 또한 흑자의 정상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새로운 화승을 위해서는 사업 재편은 물론 끊임없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말로만 혁신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천의 혁신, 계획으로만 도전이 아닌 성과로 보여주는 실물의 도전으로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진심과 최선 속에 신뢰는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됩니다. 이것은 사업에 있어서도, 생활에 있어도 늘 잊어선 안 되는 마음과 행동의 방정식입니다.

인화는 단순히 화합의 모멘텀이 아닙니다. 화합하고 그 화합을 연결해 사람과 사람, 국내와 해외의 시너지를 만들고, 그 시너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화승을 만들어 나가는 화승의 정신, 인화입니다. 하나로 협력해 만들어 가는 화승의 무궁무진한 미래, 그 중심엔 늘 인화가 함께했으면 합니다.

답은 앉아서 찾지 말고 현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포털에서 검색하고 머리로 방안을 짜는 것보다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그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늘 해왔던 것을 버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답은 내 안에 있기보다 타인의 입에 있기도 합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기보다 귀를 기울여 경청하다 보면 그 속에 혜안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상하를 막론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귀담아들을 수 있는 배려, 그 속에 진정한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화장지 반 장도 충분하다고 하셨던 성철스님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에나 들었던 절약 정신이라는 단어, 이미 다 잊으셨겠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절약 정신입니다. 절약이 습관이 되면 일도 생활도 합리적인 패턴으로 변화합니다. 결국 자신에게 이로운 슬기로운 습관인 셈입니다. 식상한 단어라고 간과하지 말고 늘 생활 속에 새기고 실천했으면 합니다.

화승 가족 여러분!
오늘 이 70주년 송년인사회의 타이틀이 바로 '길'입니다. '70년의 길'을 걸어 '100년의 꿈의 길을 향하자'는 화승의 염원을 담은 타이틀입니다. 놓여진 길도 있었지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온 길이 더 많았습니다. 쉽지 않았던 70년의 길에는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슬기롭게 높은 파고를 헤쳐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슴에 와닿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화승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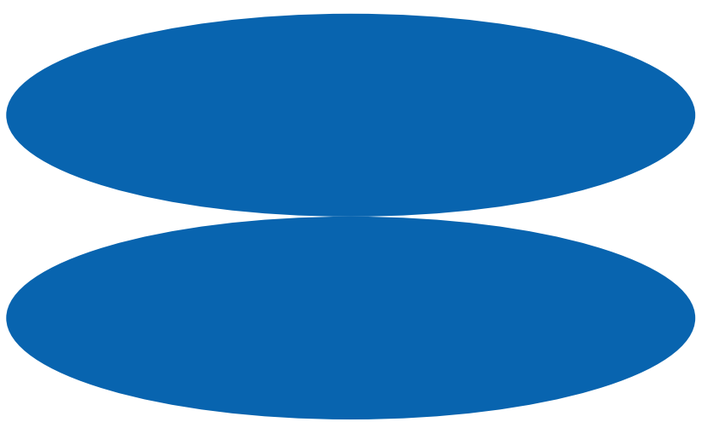
그 길에 함께할 바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소중한 화승의 역사를 바탕으로 끝없이 도약을 이어갈 100년 화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송년 인사회에서
화승 회장 **현승훈**

HWASEUNG

Walking



01

새 화승! 경쟁력 제고의 해

복지관 개관

비롯되었다

신발에서

그리고

고무

끈질긴

동력은

농자천하지대본?
공상천하지대본!

66

이제 농사가 능사가 아닌 시대가 올 겁니다.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해야 우리 아이들,
그리고 후대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어요.

99

*농사가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뜻의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만들고 판매하는 공업과 상업이 세상의 근본임을 표현한 공상천하지대본(工商天下之大本)

1945년 해방 직후, 충북 괴산 출신의 현수명 선대회장은 삼형제 중 막내로 고향에서 형들과 함께 운영하던 정미소를 정리하고 상경했다. 독립된 조국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싶었던 형제들은 그렇게 서울에 올라와 지금의 서대문구 충정로에 '동양고무공업사'라는 이름의 공장에서 고무신을 만들기 시작했다.

1920년대부터 고무를 재료로 국내에 처음 생산하기 시작한 고무신은 '순종 황제가 신어보고 편하게 여겼다'는 광고가 있었을 정도로 신문물이었다. 짚신에 비해 질기고 편하게 신을 수 있었지만, 당시 일반 서민들에게는 고급 신발이나 다름없었다.

해방된 세상은 달라지고 있었다. 노력한 만큼 성실한 대가가 돌아왔다. 형제들이 구슬땀을 흘린 결과, 공장은 자리를 잡아갔으며 소비 수요가 늘면서 시장에서는 통고무로 만든 질긴 신발에 대한 호응도 높았다. 농사를 제일로 여겼던 시대에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고(工), 파는(商) 것이 새로운 세상의 근본으로 자리 잡을 거라는, 현 씨 형제들의 혜안과 판단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일러스트 김경옥

서울에서 부산으로,
시련을 새로운 시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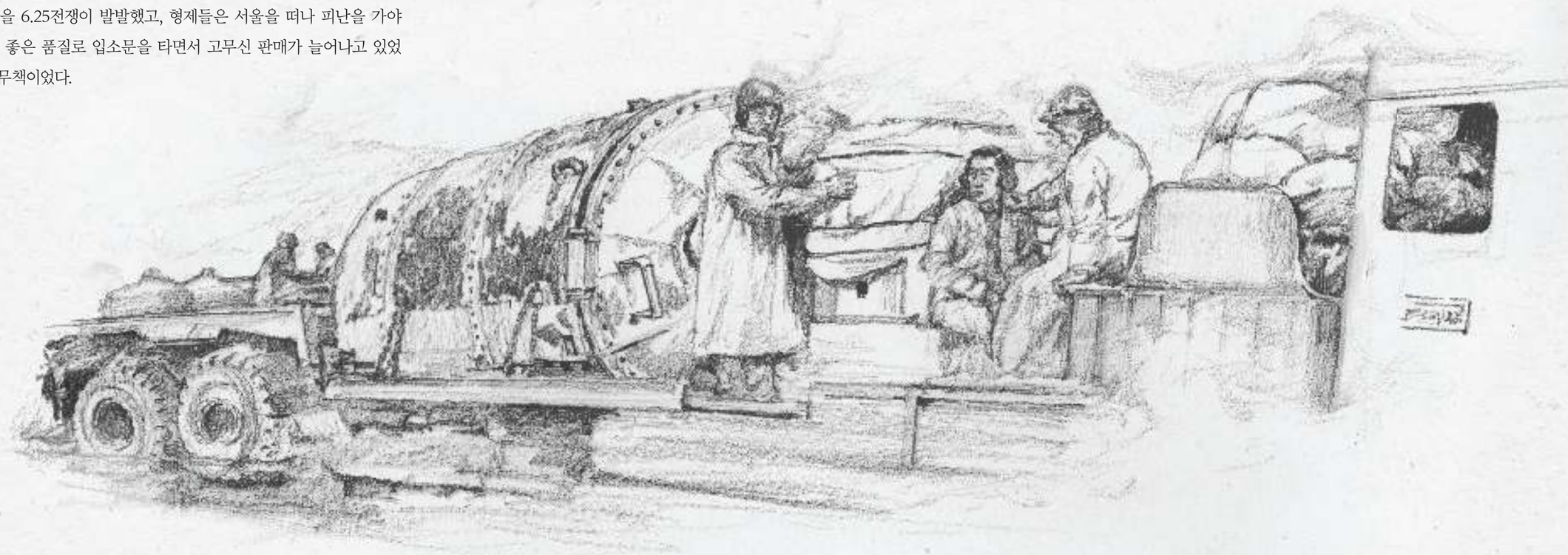
> 부산, 부산으로 갑시다!
> 하나라도 더 실어야 해요.
> 우리 목숨만큼 귀한 장비들이니….

현 씨 형제들에게는 당장 필요한 세간살이보다 고무신을 만드는 장비가 더 중했다. 1950년 한국사에 길이 남을 6.25전쟁이 발발했고, 형제들은 서울을 떠나 피난을 가야만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좋은 품질로 입소문을 타면서 고무신 판매가 늘어나고 있었지만, 전쟁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한국전쟁으로 첫 위기를 맞은 형제들은 불철주야 땀과 눈물로 일궈 온 사업을 한순간에 잃을 수 없어 피난을 주저했지만, 날아오는 포탄을 피할 수는 없었다. 1951년 '1.4후퇴'라는 대혼란 속에 남은 장비들을 챙겨 남쪽 부산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피난민들로 들끓었던 부산의 난리 통속에서도 현 씨 형제들의 일과 사업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순 없었다. 지금의 동구 초량동에 형들과 함께 동양고무공업소를 차렸다. 고향 괴산에서 처음 서울로 올라갔을 때처럼 형제들은 빈손에 맨주먹을 불끈 쥐었을 뿐이었다.

>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로 불가능하게 된다.
> 불가능은 없다는 생각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
> 현수명 선대회장의 생전 메시지



직원들과 동고동락하며 고무신 메카에서 경쟁력을 키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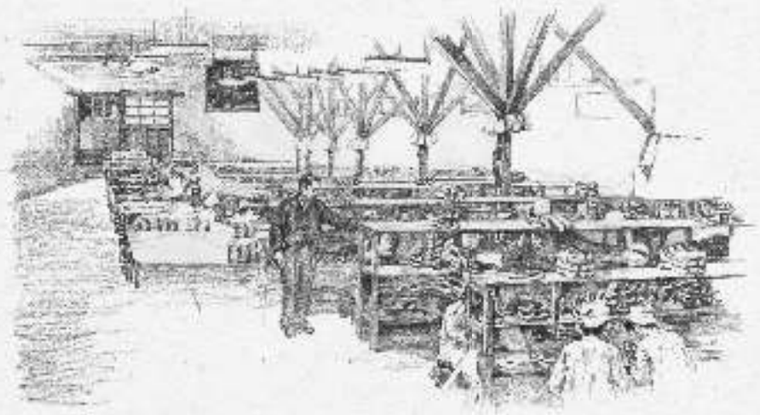
하루라도 빨리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야 했던 50년대, 바야흐로 부산은 신발공장들로 춘추전국시대를 맞았다. 초량동 유리공장을 인수해 신발을 만들던 현 씨 형제도 본격적으로 신발 사업과 경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휴전이 되면서 피난지 부산을 떠나 귀경하는 인구가 늘었고, 형들도 옛 사업 터전으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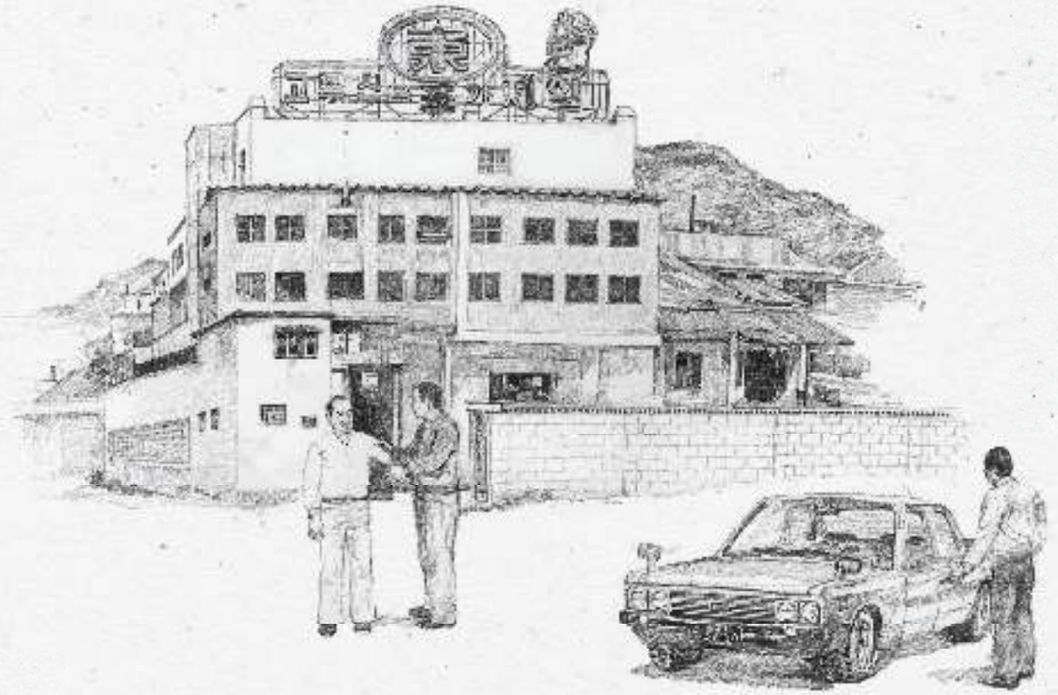
그렇게 형제 서로 간의 길을 응원하며 홀로서기를 선택한 현수명 선대회장은 1953년 8월 7일 동양고무공업(주)를 창업했다. 지금의 화승이 본격 출발하게 된 것이다. 당시로는 최고 설비인 롤러 가류가마기 1조에 불과했던 동양고무였다. 70여 개 선발 업체들에 비해 모든 게 역부족이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서울공장 시설에서 국내 최초로 생산에 성공한 흰 고무신을 바탕으로 품질로 승부해 나갔다.

66

형님! 저는 함께 땀 흘리며 동고동락한 우리 직원들과 여기 부산에서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99





현수명 선대회장은 형들과 헤어지면서 나눴던 말들을 떠올렸다. 그에게 직원들은 그야말로 식구였다. 함께 일하고 밥 먹으며 땀 흘린 직원들과 부산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가고 싶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현수명 선대회장의 모습에 직원들도 한마음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탰다. 그렇게 고무신의 메카, 부산에서 차근차근 신발업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 나갔다.

브랜드와 포장,
새로운 발상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다

66

눈처럼 하얀 고무신을 한 켤레씩 깨끗한 종이봉투에 담아서 내놓아 볼까?

99

가마니 자루에 구겨 넣었던 고무신을 리어카 위에 풀어놓은 채 판매되던, 크기만 같으면 짝만 맞춰 사가던 시절이었다. 누구나 만들고 아무나 사는 신발에서 제품다운 차별화가 필요함을 느꼈던 현수명 선대회장은 '한 켤레라도 오래, 가볍게 신을 수 있는 좋은 신발'을 시장에 내놓고 싶었다.

경쟁사 제품들과 달리, 흰 고무신을 한 켤레씩 흰 종이봉투에 담고 봉투 겉에는 '이쁘고 질긴 ㊊자표 고무신'이라고 썼다. 그의 획기적인 발상으로 東자표 고무신은 당대 최고의 브랜드가 되었고 공장 앞에는 흰 신발을 먼저 사가기 위한 상인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질기고 가볍고 맵시 있는 신발'이라는 광고와 입소문이 퍼지면서 더 가벼운 고무신을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도 함께 시작되었다. 東자표에 이어 60년대 초반 전설적인 브랜드 기차표까지 출시되었다. 동양고무는 1일 1만 켤레의 각종 신발을 생산하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포장의 효시 기업으로까지 기록되었다. 그렇게 신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며 신발사에 한 획을 그었다.

大好評! 現代人의 感覺에 맞는 2大新製品
*당신은 保健用·外出用 고무신을 準備하고 계십니까?

신제품 하이힐·스폰지 고무신 신문 광고(1965년)

21세기 화승,
고무 근성과 인화로 출발선을 긋다

역사는 시간의 산물이다. 동양고무공업(주)으로 첫 삽을 뜬 현수명은 선대회장이 되었고, 1970년 이후 경영에 뛰어든 현승훈 회장은 화승 70년의 산증인이 되었다. 화승의 역사는 순간의 꽃길을 위해 무수한 진창 길을 걸어온 시간들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쉽게 함부로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고무를 소재로 확장 가능한 사업영역을 찾아낸 화승은, 고무신에서 비롯된 신발업을 토대로 다양한 사업군에 도전하고 실패도 거듭했다. 시대에 맞춰 방향도 선회하며 몇 차례 기업 위기도 겪어야만 했다. 그때마다 지치지 않고 끈질긴 고무 근성으로 사업을 재편해 나갔다.

지금의 5개(종합무역·자동차 부품·소재·정밀화학·스포츠 패션 ODM) 사업 분야는 그 모든 고통과 경험과 노력의 산물이다.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제품들을 만들었고 동고동락한 직원들과는 신뢰로 뭉쳤다. 화승의 경영이념이 '인화'인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

모든 임직원과의 연대와 화합이 화승의 성장 동력이며 질기고 강한 고무 근성이 지금의 화승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했다. 한 걸음 한 걸음 70년을 걸어온 화승, 어디까지 가느냐고? 눈에 보이는 길을 따라,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내어 더 크게 더 멀리 가려 한다. 하여, 여기 다시 새롭게 화승의, 화승에 의한, 화승을 위한 출발선을 긋는다.

HWASEUNG

화승 70년의 길은 100년으로 향하는 중간 지점입니다.
100년 화승을 향한 패러다임의 혁신 역시, 한순간도 게을리해선 안 됩니다.

현승훈 회장의 70주년 송년 메시지

1953 — 1965

동양고무산업 창립으로 국내 신발 브랜드화를 선도하다

1966 — 1976

법정관리의 고난을 딛고 신발산업에 다시 도전하다

1977 — 1987

수출전문기업 화승으로
토종 스포츠브랜드를 출시하다

1988 — 1997

국내 사업다각화 확대와
해외 진출의 거점을 마련하다

1998 —— 2004

고강도 구조조정과 공격적 해외 진출로 위기를 극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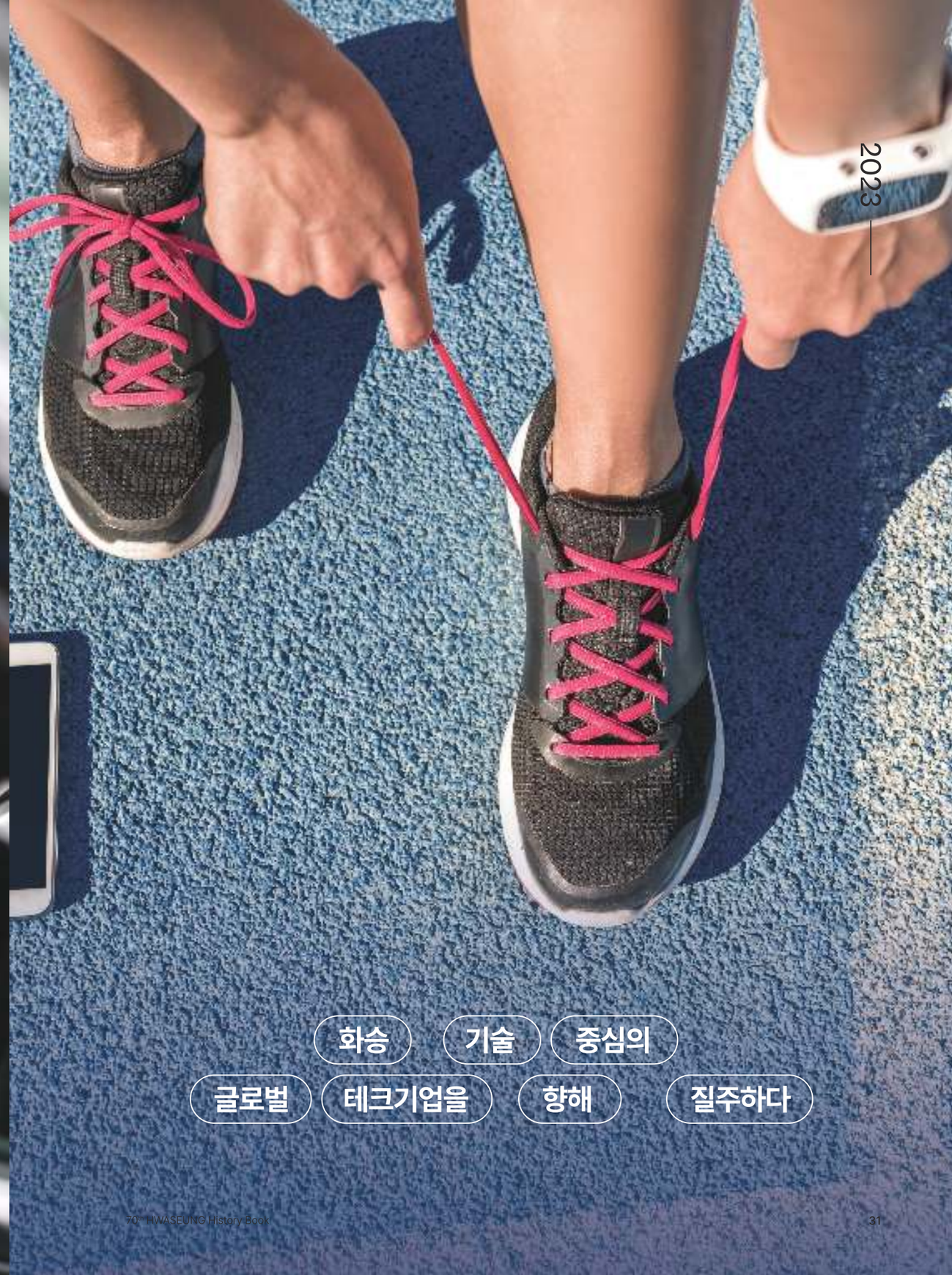
2005 —— 2013

화승 제2창업 선언 이후 글로벌 행보를 확대해 나가다

2014 — 2022

자동차 부품 소재 종합무역
정밀화학 전문기업이 되다

2023



화승 기술 중심의
글로벌 테크기업을 향해 질주하다

화승,
떠올려
새기고
그리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홍차를 마시고
오후 3시면 산책하는,
1분 1초 틀림없는 일상을 꾸려왔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새벽에 일어나
108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8시면 출근하는,
좋은 습(習)을 몸에 익혀
분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현승훈 회장.

그리고 …
1년 365일
8,760시간 525,600분
31,536,000초,

틀림없는 일상의 시간을
가치로 환산해 내는
화승사람들.

"도를 배우려면
가난부터 배워라."
철저히 무소유의 삶을 사셨던
성철 큰스님의 근검과 청빈,

경영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털고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본래대로 보며
인연 따라 걸어온
구도 같은 기업 여정에
조계종 7대 종정 성철 큰스님의
화두가 70년 화승을 깨운다.

비바람 견디고 홍수도 버텨야
묘목은 재목으로 크고

그렇게 온갖 풍상을 겪어내야
아름드리도 될 수 있다.

부침이 난무하는
기업환경을 이겨내야
크게 성장하고

여럿이 서로
화합하고
연대해야
지속 가능한 기업이다.

인고 끝에 지금의
70년생 화승이 된 건
인화의 덕이다.

앞으로도
인화를 뿌리로 희망의 가지를 뻗어
아름드리 화승으로 ….

화승,
숫자로 말하다

**우리 삶은 온통 숫자와의 씨름이다.
그만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모든 성장과 성과 또한
숫자로 말한다. 수치화한 통계로, 재미와
의미를 찾는 기록으로, 화승을 상징하는
숫자로는 무엇이 있으며 의미가 담긴 재밌는
수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70주년 화승, 숫자로 이야기해 보자.**

1953년

부산 초량동에서 '동양고무공업(주)'이라는 회사명으로 출발한, 화승 역사가 시작된 해

3,000켤레

화승 초창기, 50여 명의 직원들이 만들어 낸 1일 고무신 생산량

5억 불

1976년 수출 2,000만 달러 기록으로 '수출의 날' 철탑산업훈장을 받은 데 이어, 1990년 달성한 '수출의 탑' 기록 액수

130,000평

글로벌 브랜드 아디다스 ODM 생산기지가 있는, 베트남 화승비나의 대지 규모(429,752.066㎡)로 축구장 52개 넓이

5개 사업군

선택과 집중으로 화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군(종합무역·자동차 부품·소재·정밀화학·스포츠 패션 ODM)

9개국

화승 해외법인이 있는 국가들(미국·중국·인도·독일·튀르키예·베트남·인도네시아·멕시코·브라질)

2,000종

화승코퍼레이션의 소재(CMB·TPE·실리콘·방산·조선기자재) 사업부가 개발해 국내외로 수출하는 화합물 가짓수

1위

배합고무(CMB), 열가소성 엘라스토머(TPE) 등 특수고무 업계에서 화승이 차지하는 국내시장 점유율

51,121명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3개국의 신발 생산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해외법인 소속 화승 사람들

560,000달러

화승이 만든 나이키 에어조던1 첫 제품의 2020년 소더비 경매 낙찰가(한화 약 7억 3,853만 원)

56,494명

2023년 현재 화승에 근무 중인 임직원 수

7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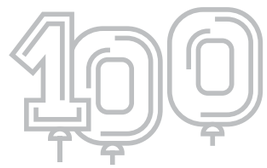
2023년에 맞이한 화승의 기업 창립 햇수

5조 7,263억 원

화승의 5개 사업군 60개 계열사에서 올리는 연간 매출액(2022년 기준)

2053년

1세기 전인 1953년 창립한 화승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



다시 뛸 결심 決心

눈뜨면 바뀌는 세상에 해묵은 소리 같지만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사람살이 70년, 힘들고 드물다 했다.
헌데 기업살이 70년, 말해 뭐하랴. 변하는 강산을 일곱 번이나 맞이하고
넘어서야 하는 질곡의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서
70년이라는 기업사를 만든 화승, 초심으로 중심을 잡고 진심을 다한 건
어떻게든 할 일은 해내야겠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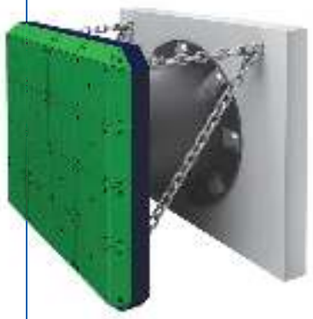
화승, 시절이 요구하는 걸 외면하지 않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건 찾아서
만들어 냈다. 고통은 이겨내고 시련은 겪었으며 한계는 뛰어넘었다.
질긴 생명력의 고무 소재를 바탕으로 20세기 넘어 21세기까지
고무적인 사업들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다. 성장의 기쁨은 누리되
실패의 쓴잔 또한 마다하지 않았던, 부단한 결심의 증표였다.

현수명 선대회장, 현승훈 회장을 위시해 커켜이
화승의 역사적인 면면을 채워 온 주역은 수많은 화승인이었고,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 또한 화승사람들이다.
이제 화승 70년이라는 포석은 깔렸으니, 뛰는 일만 남았다.
화승인이여, 결심했는가?
화승 100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에 가속을 붙여 다시 뛸 결심을!

HWASEUNG

Running

02



GROCERY

화승의 변신은, 변화다

기존의 모양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변신'이라 한다. 기업의 대표적인 변신이라면 심벌 브랜드나 로고를 통해서다. 1953년 동양고무공업(주)으로 출발한 화승, 2023년 현재까지 몇 번의 변신이 이루어졌을까. 로고 교체에 따른 시기별 변화는 어떻게 기록될 수 있을까. 변신을 통해 변화를 꾀해온 70년 여정의 화승 심벌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1953

창업 및 신발시장 평정기

1953년 신발공장 춘추전국시대를 맞은 부산에서 창업, '東자표 흰 고무신'으로 포장의 효시를 기록했으며 붓글씨로 상표를 찍으면서 신발시장 평정

1965

기반 조성 및 성장 가속기

'기차표'로 상표등록, 전국이 기차표 고무신에 열광하면서 신발업의 기반을 다졌으며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한 수출 증대에도 힘써 철탑산업훈장 수훈

1978

세대 교체 및 현업 강화기

현수명 창업주의 작고로 젊은 현승훈 사장 등장, 동양화공(現 화승R&A) 등 6개 계열사를 설립했으며 신발 외길로 부침 심한 시장환경에서도 순항 유지

1983

지속적인 개혁 및 도전기

나이키 제조사에서 벗어나 토종 브랜드 르까프를 출시했으며 생산기지 해외 이주 추진 및 반(頒)신발경영 체제 실시, 선택과 집중으로 기업 도전 강화

2005

목표와 비전 향한 비상기

'Do better Tomorrow' 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New Vision을 선포,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및 창의와 혁신을 위한 지속적 노력

2023

현실 기반한 미래 구현기

변화와 첨단의 시장 상황에서 창립 70주년을 맞은 화승, 현실에 기반한 성장 환경 구축 및 ESG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100년 화승 가시화에 박차

‘미국’하면 앨라배마 ‘멕시코’하면 살티요

UNITED STATES OF AMERICA

2016년 이후, 7년 만에 그룹 홍보영상 업데이트를 위해 화승 대부분의 법인을 돌았다. 사악한 일정으로 인해 모든 법인을 돌지 못했지만 오랜만에 다시 현장을 방문하는 곳들이 많아 약간은 설레었다.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 출장, 간만에 장거리 출장이다 보니 설렘도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어마무시한 공포가 찾아왔다. 사고가 없어야 할 텐데, 간 김에 잘 찍어야 할 텐데….
한국을 비롯해 미국,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까지 총 6개 국가를 한 달여 돌아다니며 촬영했고, 그중 미국과 멕시코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

MEXICO

글·사진 심일욱 그룹홍보실 선임

익숙하고도 낯선,
화승 앨라배마

7년 만에 방문한 화승 앨라배마 법인은 놀랍게도 그대로였다. 공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부터 전경, 선글라스가 어울리는 쾌청한 날씨까지 7년 전 느꼈던 미국스러운(?)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웨더스트립, 호스 등 국내 공장에서 매번 보던 설비들이지만 이상하게 미국은 다른 느낌이다. 매일 보던 옷차림이 아니라서, 매일 보던 얼굴이 아니라서 그럴까, 굉장히 익숙하지만 낯선 느낌이 들었다. 먼지 하나 없는 맑은 날씨, 다양한 인종, 깔끔한 시설 등 사실 홍보영상을 촬영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 아닐 수 없다.

UNITED STATES OF AMERICA

시차 적응에 실패했지만, 적응은 사치였다. 1분 1초도 아까운 상황에 냅다 카메라를 들이밀고 찍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찍기 위해 엉덩이를 넘어 다리도 희생시켰다. 덩달아 인원 섭외와 통역을 맡아주셨던 김지우 책임의 다리도 심한 고생을 해야만 했다. 그래서 촬영이 끝나고 그녀의 달콤살벌한 협박도 들어야만 했다. '이렇게 고생했는데, 홍보영상에 미국 꺼 많이 안 들어가면 두고 봅시다.'(여러분, 나중에 나올 홍보영상에 미국 법인의 장면이 너무 과하게 많이 나온다면 그건 김지우 책임 때문입니다….)

HSAA의 법인장을 맡고 있는 황기영 전무도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육개장'을 대접해 주시며 미국 법인의 분량을 강조하셨다. 역시 로비의 나라 미국. 3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최고의 촬영 환경을 만들어 주신 HSAA, HSAU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살사의 나라,
열정의 화승 멕시코

정신없는 일정은 미국에 이어 멕시코로도 이어졌다. 몬테레이 공항에서 차로 약 1시간, 화승 멕시코 법인이 있는 살티요로 이동했다. 멕시코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7년 전 멕시코에서 홍보영상 촬영 중, 첫째가 태어났고 아직까지도 출산 당시 아내 옆을 지키지 못했던 나는 욕을 먹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욕을 먹지 않으려고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

MEXICO

2016년 당시 신생 법인이었던 HSAM은 벌써 3공장까지 확장됐다. 직장인 은어로 사업이 확장되었다는 말은 직원들이 매우 바쁘다는 말. 얼마 전 법인장으로 발령받은 이기영 상무를 비롯해 정말 모든 직원이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본사에서 파견을 나온 출장자들,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직원들 사이로 촬영 협조를 구하자니, 눈으로 욕을 먹는 기분이다.

역시 멕시코는 욕먹어야 제맛. 물론 실제로는 바쁘신 와중에도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해 촬영에 임해주셨다. HSAM의 '비선실세' 차원지 사원의 화려한 통역과 연기지도로 멕시코에서도 최대한 분량을 뽑은 촬영팀. 유난히 웃음이 많고 적극적이었던 현지 직원들의 참여는 아직까지도 촬영팀에서 회자되고 있다. HSAM 직원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촬영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동안 촬영한 532개의 사진과 1,201개의 영상을 다시 훑어봤다.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지만 결국 한국, 미국, 멕시코 할 거 없이 화승사람들, 일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더라. 파란 화승 CI를 가슴 한켠에 달고 인화의 가치로 땀 흘리는 화승사람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화승의 역사를 담아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느낀다. 70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를 돌아돌아

화승피디아

VIETNAM

미국, 멕시코 촬영 출장은 산적한 업무로 함께하지 못했다.
하지만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의 동남아권 촬영은 꼭 함께하리라 마음먹고
업무 조정에 박차를 가했다. 2004년, 2016년에 이은
세 번째 화승 홍보영상 촬영 출장. 특히 스포츠패션 ODM 사업의
현장인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테크기업으로의 변신에 대해
꼭 취재를 해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머나먼 인도에 위치한 HSIAUTO(화승인도), HSMI(화승코퍼레이션인도)의
두 법인은 어떻게 흑자 행진을 이루고 있는지,
그 현장을 함께하고 싶었다. 그렇게 떠난 17일간의 촬영 출장,
길고도 짧았던 순간 속으로 함께 이동해보자.

INDONESIA

INDIA

글 김병호 그룹홍보실장 **사진** 김병호 그룹홍보실장, 심일욱 그룹홍보실 선임

1-2day

화승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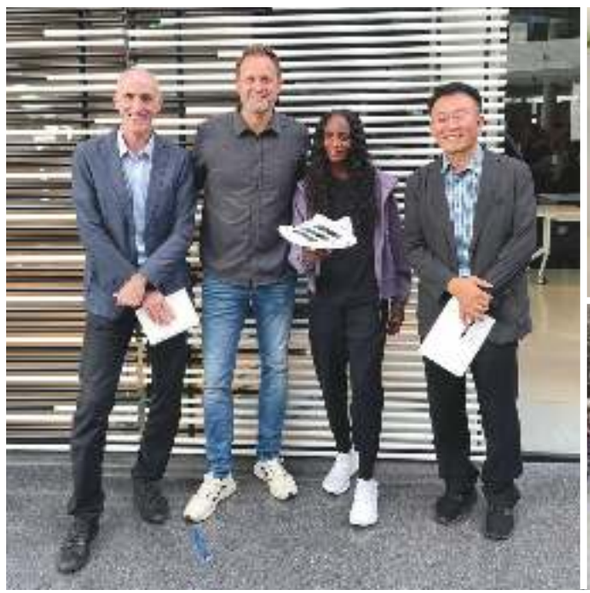
HS VINA

글로벌 스포츠 패션 ODM 기업 화승엔터프라이즈의 베트남 현장에는 신발을 생산하는 화승비나, 화승원, 화승락지아는 물론 모자를 생산하는 유니팍스, 의류를 생산하는 USV, 섬유를 생산하는 대영비나까지 수직 계열화된 체계적인 기업이 포진해 있다.

화승 신발 사업의 메카, 베트남 호치민 인근의 동나이성 연짝공단에 위치한 화승비나. 세계적인 아디다스 신발 생산 현장인 이곳은 단순히 신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발, 생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신발의 모든 것을 해내는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다. 1공장, 2공장에서 쉴 새 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신발을 보면 70년 화승의 역사 속에 늘 함께했던 신발의 베이스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듯하다.

"신발 생산이 자동화가 되겠어"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곳 화승비나로 와봐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그 군소리가 현실이 되었고, 소수의 인원으로 단번에 신발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눈앞에서 목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름하여 HS PUR LINE, 화승비나 자동화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다. 신발도 자동화가 가능하고 테크기업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화승엔터프라이즈가 글로벌 신발 사업 CEO로 영입한 밥셔록은 지난 10월 부산에서 현승훈 회장을 만나며 업무를 시작했다. 부산에서 만났던 그를 이곳 베트남에서 다시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다.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자동화 공정라인 HS PUR

화승엔터프라이즈 신발 사업을 총괄하게 된 CEO 밥은 아디다스 소싱 전문가로 15년을, 대만 신발 제조 회사인 칭루에서 15년을 근무하며 35년간 신발 사업에 매진해 왔다. 화승엔터프라이즈는 핵심 사업인 신발 사업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아디다스그룹의 신발 부문 임원이었던 밥을 영입해 글로벌 스포츠 패션 전문 ODM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및 개발을 위한 디자인 분야의 역량을 확보하여 고객과 함께 제품의 컨셉부터 설계, 개발, 자재소싱, 생산, 품질관리, 배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커버하는 전방위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지난 7월 독일 사무소를 개설해 안드레 월터(Andre Walter)를 영입했다. 독일 현지에서 고객사의 전략 및 요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고객사 및 소비자 대응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화승엔터프라이즈는 글로벌 전문가 영입과 더불어 수직계열화를 통해 '3조 원 달성'이라는 2025 비전 실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신발 및 모자 사업 각각의 수직계열화를 이미 실현해 가고 있으며, 스포츠 의류 사업의 수직계열화를 더해 경영 효율화 및 수익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디다스를 비롯한 새로운 신발 브랜드 생산을 위한, 미래를 여는 화승엔터프라이즈 이계영 대표는 새로운 재편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섰다. 신발 사업 CEO 밥셔록과 함께 독일 아디다스 출장을 다녀와 새로운 사업 구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day

화승원

HWASEUNG ONE

화승원? 화승원! 현승훈 회장님의 정원을 일컫는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화승원은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새로운 동력을 장착하기 위한 또 하나의 베이스캠프로 탄생했다. 아디다스와 더불어 화승의 새로운 ODM 브랜드를 영입해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화승원(HWASEUNG ONE)이다. 이미 MLB를 비롯한 몰라, 폭스 등을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여타 브랜드들과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다. 화승원에서 만난 법인장 김도형 부사장은 기존 IBS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화승원인 만큼, "더 큰 각오로 좋은 성과를 위한 발돋움을 시작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3day

대영비나

DAEYOUNG VINA

법인장 류관형 부사장이 이끄는 대영비나, 화승엔터프라이즈에 섬유 사업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 의류 원단에서 신발 소재의 섬유까지, 섬유의 모든 걸 생산하는 대영비나는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섬유 사업을 담당하며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수직계열화의 마지막 방점을 찍은 회사다. 앞으로의 사업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종합 스포츠 패션 사업의 포트폴리오에 있어 중요한 사업인 만큼 그 영역을 더욱 크게 펼쳐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3day

USV

"화승엔터프라이즈에 의류 회사가 있어"하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사보 여름호에서 소개했던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의류 생산 현장이 바로 USV다. 라코스테 등 의류 브랜드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의류 공장이다.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 와이드하게 펼쳐진 공간과 사람에 압도 당한다. 이곳에서 세계인들이 입는 의류가 생산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웅장해진다. 출장으로 법인장 김진규 이사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생산된 제품이 전시된 쇼룸에서 USV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었다.

4day

유니팍스

UNIPAX

나이키, 아디다스, 필라, 라코스테 등 전 세계인들이 매일 쓰는 모자는 어디서 만드는 걸까? 바로 이곳 베트남 유니팍스다. 신발, 의류, 섬유에 이은 액세서리 라인의 모자를 생산함으로써 스포츠 패션 ODM 사업의 라인업을 완성한 화승엔터프라이즈의 면모를 확연히 느낄 수 있는 유니팍스는 법인장 한승 이사가 특유의 추진력으로 좋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었다. 비탄에 위치한 새로운 공장을 가동할 만큼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유니팍스는, 시장점유율을 높여 'No.1 모자 공장'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려갈 준비를 마쳤다.

7-8day

화승락지아

HSRG

화승비나에 집중된 신발 생산을 전략적으로 분산해 효율을 높인 곳이 바로 베트남 서부 락지아 공장이다. 베트남의 오지라 불릴 만큼-특히나 근무하는 한국 직원들이-힘든 환경을 이겨내고 있는 이곳 화승락지아는 베트남 사람들 특유의 친화와 열정이 배어난 특별한 곳이었다. 화승락지아에서 인상 깊은 활동은 GWP(Great Work Place)이다. 최적의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활동하는 행동들이다. 그것은 바로 방송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직원이 직원들의 사연을 받아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들려주며 공감의 시간을 갖거나, 화승락지아 미인선발대회를 통해 직원들과의 유대를 더해가는 등 임직원 중심의 다양한 활동이다.
화승락지아의 에센셜한 ESG 활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버려지는 페트병을 모아 리사이클링하는 과정을 전 직원들과 함께하는 것, 리사이클링 아트 경진대회와 그 결과를 사내 식당에 전시해 누군가의 ESG가 아닌 우리 모두의 ESG라는 것을 눈앞에 보여준다는 것이다. 화승비나 출장으로 법인장 이계주 상무를 만나지 못했지만, IT 리더 임원에서 한 법인의 대표로서 경영 마인드를 장착한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화승락지아였다.

10-12day

화승인도네시아

HWI

2016년 홍보영상 촬영 당시 설립된 화승인도네시아. 시작 단계라 담을 수 있는 게 없었던 이곳을 2023년 지금, 처음으로 발을 디뎠다. 자카르타에서 스마랑으로 이동해 스마랑에서도 한참을 더 가야 나오는 화승인도네시아는 태광, 창신, 파크랜드 등 타 신발 제조 회사들이 소재한 특별한 지역이다.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신발 생산에 있어서 또한 -전략적 거점 지역으로 부상한- 이곳은 짜임새 있는 구조와 시스템으로 신발 생산의 메카로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화승인도네시아는 직원들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원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특히 사내 복지로 돋보였다. 더불어 한국인 근무자를 위한 배려 또한 특별했다. 화승인도네시아는 설립 당시부터 한국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우선으로 설계해 지금도 남다른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1인 1실의 기숙사 시설은 물론 피트니스 센터, 스크린 골프, 당구장, 노래방 시설 등 주말에 굳이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사내에서 논스톱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매주 금요일 저녁엔 삼겹살 데이로 직원들이 소통하고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진다.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잘 된다는 공식을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화승비나로 출장 간 법인장 김광현 부사장을 만날 수 없어 아쉬웠지만 이틀간의 촬영 중 목격한 모든 생산 현장과 직원들이 생활하는 모습에서 화승인도네시아만의 아주 특별한 배려와 조직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12day

성신인도시네아

SG

신발의 미드솔을 생산하는 거점 공장, 성신인도네시아. 성신과 화승의 합작회사인 성신인도네시아는 신발 미드솔 전문 생산 기업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작업장이 무척 인상적인 곳이었다. 미드솔 생산은 물론 브라질 슬리퍼로 유명한 하바이아나스에 완제품을 납품할 정도로 생산력 또한 갖췄다. 공장 내 위치한 사무동, 그 중심에 식물로 가득한 풍경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ESG는 따로 있지 않다. 직원들이 녹색 식물로 안정감을 찾고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동력의 순환, 그것이 결국 사람을 위한, 사업을 위한 ESG가 아니겠는가.

13day

대영인도시네아

HSDT

스마랑 지프리에 위치한 화승인도네시아를 떠나 도착한 대영인도네시아. 섬유 생산 회사인 이곳은 그야말로 신세계다. 법인장 이경선 상무의 안내를 받고 곳곳을 돌아본 결과, 그룹 내 가장 ESG를 잘 실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대영인도네시아였다. 사업장 곳곳 뜻하지 않은 곳에 식물들이 배치되어 있고 직원들을 위한 복지 공간도 숨어있다. 가장 숨 멎는 감동 공간은 바로 폐수처리장. 염색 공정으로 인해 탁해진 물을 정화해 그 물에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순환의 미학을 실천하고 있었다. 또한 버려지는 쓰레기를 모아 재활용품으로 팔아 남은 돈으로 직원들 복지비용으로 되돌려 쓰고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감동적인 선순환의 현장인가. 공정을 돌아보는 곳곳에서 이경선 상무의 돋보이는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었다.

15day

화승인도

HSI AUTO

화승의 '해외 진출 1호 기업'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현지화에 성공한 화승인도(HSI AUTO)는 안드라 프라데시에 위치한 HSIA까지 생산 거점을 늘렸고 향후 마하슈트라 주에 있는 푸네 지역까지 생산 거점을 추가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법인장을 포함한 한국 주재원들은 인도 미래 성장성에 발맞추어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더 나은 손익구조 개선을 위해 내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공헌으로 병원 진료 버스를 지원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었다.

16day

화승인도

HSMI

화승인도(HSI AUTO)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HSMI(화승인도). 외부 거래가 60%에 이를 만큼 고객 다변화에 성공한 귀감이 되는 법인이다. 2021년 그룹 송년인사회에 우수법인으로 선정될 만큼 그 성과가 특별하다. 외부 거래의 영업 이익 자체도 상당할뿐더러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블루오션 법인이다. 인도의 무한한 가능성을 성과로 보여준 화승인도(HSMI) 법인장 정관섭 상무는 10년이 넘도록 한자리를 지키며 인도를 밝혀왔다.

일례가 될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자면 인도는 아직도 부모님이 정해준 인연과 결혼을 하는 관습이 있다고 한다. 한 남자 직원이 사내 연애를 통해 결혼하게 되었고 집안에서 탐탁지 않아 했다. 결혼식 날 참석한 정 상무, 부모님의 반대 탓으로 신랑 하객이 0명이었음에 충격을 먹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무사히 결혼식을 마칠 수 있게 했다. 이 얼마나 감동의 순간인가. 사람과의 소통이 결국, 그 법인의 흥망성쇠가 될 수 있음을 전적으로 보여준 에피소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화승인도(HSMI). 그 무한한 가능성을 응원한다.

화승인도(HSMI)에서 만난 반가운 또 한 계열사가 있다. 바로 화승네트웍스인도(HSNI)의 손국희 선임. 화승인도(HSMI) 정관섭 상무가 법인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곳은 그룹사 통합구매는 물론 원자재 외부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머나먼 인도에서 무역 사업을 펼쳐가고 있는 최전방의 물류 프론티어들, 그래서 더 반갑고 든든했다.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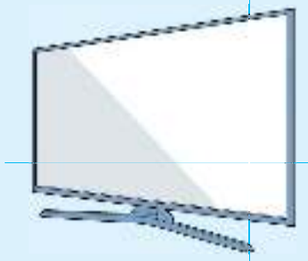
화·승·본·색

네 속에 화승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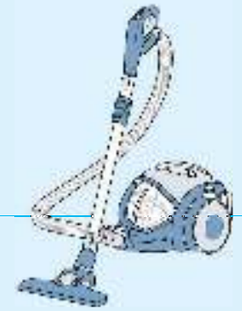
당신이 즐기고 애용하는 일상용품들 속에,
가족과 친구가 함께하는 생활 곳곳에,
국가 인프라가 작동하는 긴밀하고 중요한
산업 현장에 화승의 제품과 기술력이
움직이고 있다. 브랜드에 눌려 진정한
속내를 모르고, 외장에 가려 숨겨진
핵심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기 그 본색을 드러내 본다. 화승의
구슬진 노력과 기술력이 내재한 제품 중
극히 일부만을 소개한다.

일러스트 허수정

생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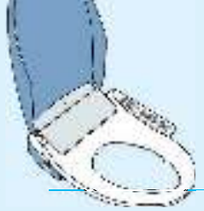
화승케미칼 PET필름(테이프용)과
컴파운드(범용/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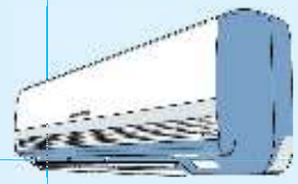
진공청소기,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화승케미칼 컴파운드(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활 속 안전모 부품에도
사용되는 화승케미칼
컴파운드 범용 플라스틱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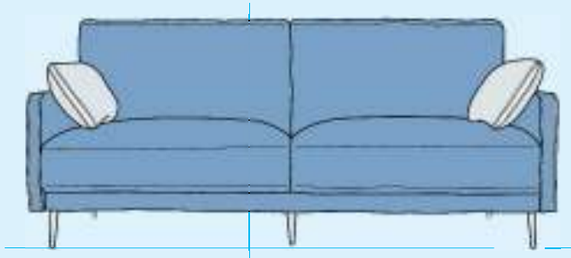
가방·신발·자동차·장갑에
사용되는 화승케미칼 화학 수지
(수성·유성 PU)



비데 및 일상 가전 부품에
사용되고 있는 화승케미칼
컴파운드(범용 플라스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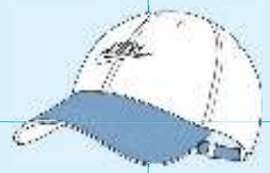
에어컨 및 범산업용에 쓰이는 화승케미칼
컴파운드(엔지니어링 플라스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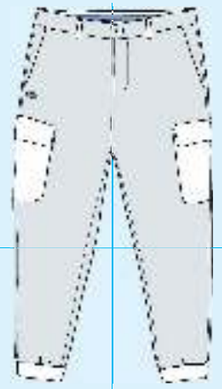
소파 및 가구 부품에도 사용되는
화승케미칼 컴파운드(범용/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냉장고 및 생활가전 부품에 사용되는
화승케미칼 컴파운드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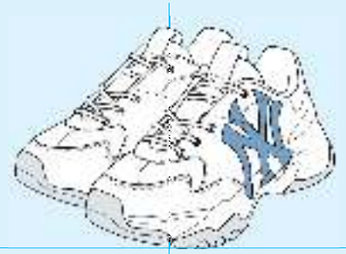
스포츠 패션 ODM 사업의 핵심업체인
화승비나에서 생산하는 아디다스 운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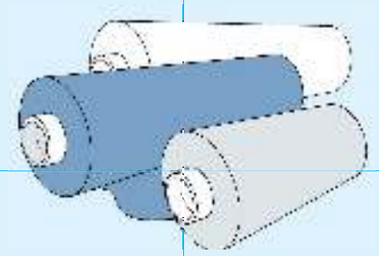
글로벌 모자업체 유니팍스를 인수한
화승엔터프라이즈에서 생산하는
나이키 모자



품질 경쟁력으로 글로벌 의류 브랜드 라코스테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화승엔터프라이즈 생산의 제품들



베트남에 있는 화승원(HWASEUNG ONE), 중국에 있는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HWD)에서 생산 중인 MLB 운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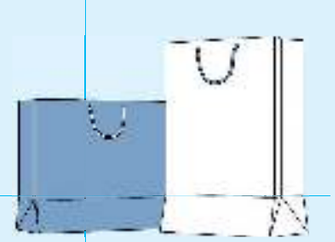


일상용,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화승엔터프라이즈 섬유 제품들

생산재

식품 및 산업제품 포장용지에 애용되는
화승케미칼 PET필름(증착필름)

포장 및 라벨, 의류 인쇄에 사용되는
화승케미칼 PET필름(스템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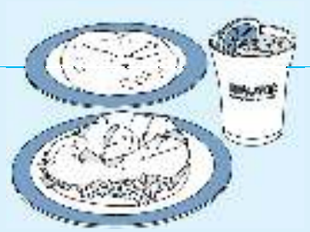


쇼핑백 및 각종 명함 등 합지용으로 쓰이는
화승케미칼 OPP필름(합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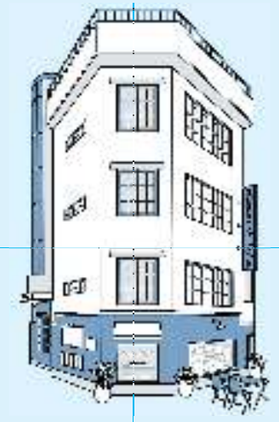
빨대 포장 및 각종 신선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OPP필름(복합/방담필름)

제품 라벨 및 인화지 등에 사용되는
화승케미칼 OPP필름(합성지/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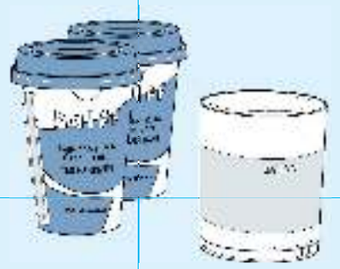
식음료재



MZ세대 핫플이 된 베이커리 카페 브라우터의
시그니처 메뉴인 프레첼(Pretzel)과 음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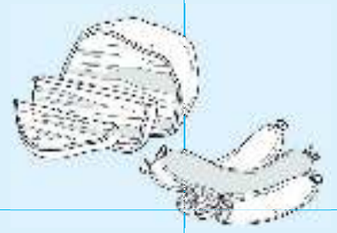
화승인더스트리의 푸드테크 기업 여덟끼니가
런칭한 브랜드 카페, 브라우터(BRAU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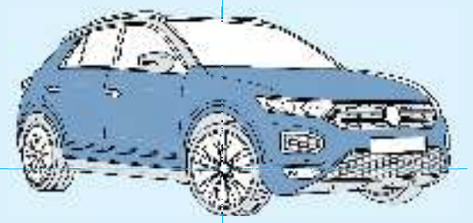
화승인더스트리 여덟끼니의 F&B 브랜드 중
하나인 하프커피(halff coffee)의 시판 제품들

현재 전국 12개 하프커피 매장에서 맛볼 수 있는
단·짠의 진수인 도넛과 캔라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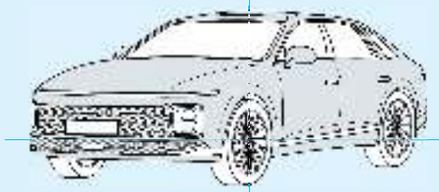
푸드테크 기업 여덟끼니의 프리미엄 식문화
공간인 커스텀잇(CUSTOM EAT)



세계 유명 델리 가공품을 자체 생산·공급하는
여덟끼니 자회사, 코라이징 F&B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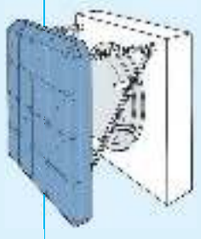


글로벌 명차 SUV에 들어가는 부품,
화승R&A의 고성능 브레이크 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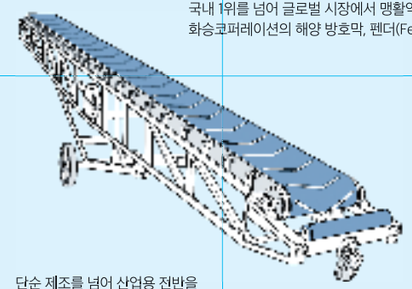


국내 유명 세단에 탑재된 화승R&A의
웨더스트립 및 프레임리스 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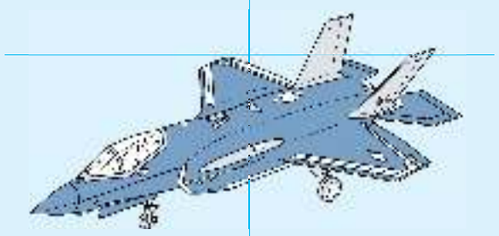
산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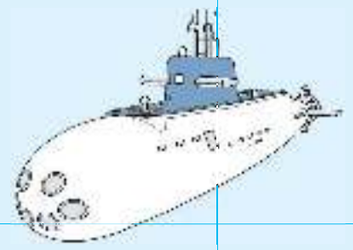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맹활약 중인
화승코퍼레이션의 해양 방호막, 펜더(Fe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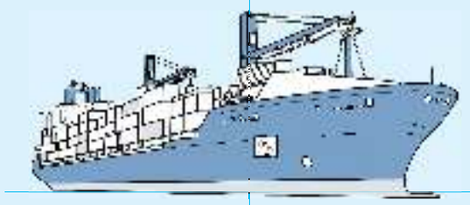
단순 제조를 넘어 산업용 전반을
아우르는 화승코퍼레이션 컨베이어벨트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제공하는 화승코퍼레이션의
방산(스텔스기) 및 항공우주 부품들



음향 타일 및 배플, 연료탱크 등 잠수함에
탑재되는 화승코퍼레이션의 부품들



선박의 추진축에 장착되는 핵심 부품은
화승코퍼레이션의 스턴튜브 씰(Stern Tube Seal)

HWASEUNG

Driving

03

HWASEUNG

화승 70주년,

송년인사회로 100년 기업을 열다

12월 15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화승 70주년 송년인사회. 1년간의 70주년 셀레브레이션이 마무리되는 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오산! 이 송년인사회를 기점으로 100년 화승의 지속 가능한 길을 연 날이기 때문이다.

'길'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된 본 행사는 과거의 화승을 돌아보는 1부와 현재의 화승을 조망하며 미래를 꿈꾸는 2, 3부까지 쉼 없이 달렸다. 본 행사 이후 이어진 국내 임원과 해외 참석 임직원들의 밍글링을 위한 웰커밍 리셉션까지, 그 후끈했던 현장을 들여다 보았다.

글 김병호 그룹홍보실장 사진 손호남

1부 - 70년 화승의 기업 여정에 대한
축하로 포문을 열다

국내외 300여 명의 화승인이 함께한 70주년 송년인사회. 연말 셀레브레이션 컨셉과도 같이 늘 하던 송년인사회에 7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하지만 보다 공감의 컨텐츠로 70주년의 의미들로 꽉 채우고자 했다. 어린이 뮤지컬 배우 김주안 군의 '고향의 봄' 독창이 흘러나오며 고향 풍경과 현승훈 회장의 인생 영상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고향의 봄을 특히나 좋아하는 현승훈 회장, 46년 경영의 세월을 아련한 향수와 함께 인생을 아카이빙한 순간이었다. 화승의 70년 역사를 오롯이 담은 화승 히스토리 영상 상영 이후에는 화승 70주년 경과보고가 있었다. 장내에 70주년 활동 영상이 마무리되고 70주년 기념사업단 단장인 박동호 화승네트웍스 대표가 담대한 의미를 담은 프리젠테이션을 이어갔다.

그룹홍보실 김병호 실장의 New CI 소개 이후에는 화승 홍보영상인 브랜드 필름이 공개되었다. 기존 사업 소개보다 화승의 가치를 묵직하게 녹여낸 영상에 큰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인화의 가치, 그 가치를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1등 테크기업'이라는 미래 비전으로 완성하겠다는 의미가 그대로 담긴 영상이었다. 이어서 축하 무대가 펼쳐졌다. 올해 가장 큰 재미를 줬던 MBC 열전 노래방 부산과 양산 편에서 큰 활약을 했던 화승네트웍스 김문욱 선임과 화승알앤에이 김용섭 선임의 노래는, 그야말로 1부 행사의 백미로 꼽을 수 있겠다. 김문욱 선임의 'You Raise Me Up'은 감동을, 김용섭 선임의 '진또배기'는 흥을, 각기 다른 매력을 선사한 시간이었다.

2부 - 화승 계열사별
가슴 웅장한 목표와 비전을 발표하다

2부는 1953년 동양고무공업이 70년이 지난 2023 화승에게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는 안부를 묻는 영상으로 열었다. 다음으로 화승코퍼레이션 곽명철 상무의 실적 및 사업계획 발표, 그리고 화승코퍼레이션 허성룡 대표와 화승엔터프라이즈 이계영 대표의 사업 비전 발표로 이어졌다. 화승코퍼레이션의 각오를 담은 영상이 특히나 인상적이었다. 허성룡 대표는 발표를 통해 화승코퍼레이션이 나아갈 길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다.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아디다스 그룹, 베트남 동나이성의 축하 영상을 시작으로 화승엔터프라이즈만의 담대한 길을 영상에 담아 발표했다. 이계영 대표의 발표는 '길'에 대한 컨셉을 비전으로 풀어낸 특별한 순서였다. 화승알앤에이 김형진 대표의 테크기업 전략목표에 대한 발표로 이어졌다. 화승알앤에이를 비롯한 화승코퍼레이션에 있어 테크기업은 어떤 의미이며 1등 테크기업이 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통해 눈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이었다.

3부 - 화승과 동고동락해 온
영광의 화승인들과 함께하다

3부는 생동감크루 '천고무'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천고무에서 형형색색 밝은 미래로의 도약을 담은 공연으로 인상 깊은 무대를 선보였다. 다음으로 장기근속의 영광을 안은 이들이 소개되었다. 20주년 화승인더스트리 박종우 이사, 화승알앤에이 손영호 상무, 25주년 화승코퍼레이션 이정일·김국현·윤순환 상무, 30주년 화승코퍼레이션 윤우원 전무, 화승알앤에이 구철홍·박상희 상무, 화승베트남케미칼(HSCV) 박보근 이사. 바로 이들의 땀이 더해진 세월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감동의 순간이었다. 현승훈 회장의 시상으로 우수회사 특별상이 발표되었다. 깜작 이벤트로 진행된 본 순서는 화승코퍼레이션 계열은 화승알앤에이, 화승인도(HSI AUTO)와 화승인도(HSMI)가 영광의 타이틀을, 화승인더스트리 계열은 화승락지아(HSRG)와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HWD)가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

화승 우수회사들, 실적 및 비전을 말하다

화승알앤에이 단일회사로 300억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며 한국과 아시아 지역 6개 법인의 RHQ로서 RHQ 내의 구조 개선, 법인 지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화승인도(HSI AUTO) 오랜 기간의 성장 정체를 딛고 올 한 해 높은 수익성 개선을 일궈냈습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관계 법인들 간의 협력과 지원도 적극적으로 수행했으며, 인도 로컬 업체로 고객을 확장하는 등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성장도 기대됩니다.

화승인도(HSMI) 어려운 상황에도 10여 년간 한해도 빠지지 않고 높은 이익률을 유지해 왔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올해 최대로 높은 성과가 예상됩니다. 내부 비즈니스에만 의지하지 않고 적극적인 외부 영업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모범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화승락지아(HSRG)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발 완제품 공장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해 아디다스 신발 완제품을 순조롭게 생산해 왔습니다. 올해 엔터 계열 법인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장 운영이 정상궤도를 넘어 최고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 보여준 결과입니다.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HWD) 올 한 해 신발 업황 악화, 중국 내 애국 소비 등의 어려운 대외 환경을 타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3D PUR 장비를 필두로 한 공장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 절감 등을 이뤄냈으며, 주요 매출처인 아디다스의 오더 감소를 타 브랜드 오더로 최대한 방어하였습니다.

우수회사에 대한 소개 내용만 봐도 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노력에 노력을 다했는지 알 수 있었다. 다음 순서로 이어진 화승원 헤리티지 영상으로 그동안 화승원을 다녀갔던 명사와 그들이 화승원에 대한 소감을 담은 영상은 지금까지 알던 화승원에서 좀 더 확장된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특별한 순서였다. 다음은 현승훈 회장의 70주년사로 이어졌다. 70주년에 대한 소회, 그리고 화승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더 큰 마음을 담은 웅장한 순간이었다.

식사 이후 41층에서 이어진 웰커밍 리셉션. 해외에서 참석한 해외 임직원에 대한 각 대표이사들의 재치 있는 소개와 함께 밍글링의 현장이 그대로 이어졌다. 참석했던 화승락지아에 근무하는 키미는 "화승 직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만큼 감격스러운 행사에 초대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한 분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같은 화승 직원이어도 물리적 거리로 소통이 쉽지 않았던 아쉬움을 직접 인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우리는 모두 화승'이라는 이름 하나로 식구가 되는 따뜻한 순간이었다. 70주년을 맞은 2023년, 송년인사회를 기점으로 100년 기업을 향해 모든 임직원이 결의를 다진 아주 특별한 12월 15일이었다. 잊지 못할 순간으로 다시 한번 기억될 것이다. 70

HWASEUNG

70th Welcoming Reception

70th Welcoming reception for

70th Welcoming reception for

70th Welcoming reception for

양산 빅 이벤트
화승 70주년
그야말로 마술 같았던

70주년 한해가 마무리 되어가던 11월 4일 토요일.
양산 화승R&A, 화승T&C, 화승코퍼레이션 양산 및
부산 기장공장, 3사의 그야말로 마술 같은 하루가 펼쳐졌다.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오후 내도록 펼쳐진 화승 70주년
기념행사는 마술과 노래, 경품으로 어우러진 잊지 못할
빅 이벤트였다.

글 김병호 그룹홍보실장 사진 손호남

500명 참석을 예상했던 화승 70주년 기념 양산 행사는 그 예상을 시원하게 빗나가 주었다. 500명을 훌쩍 넘겨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극장의 2층 객석까지 채운 행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임직원들이 만든,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임직원들의 날이었다. 800명에 육박한 참석자로 행사장은 더욱 후끈하게 달아올랐다. 화승R&A, 화승T&C 김형진 대표이사와 박창호 노조위원장, 양산 및 부산 기장 소재 화승 법인의 전 임직원들의 가족, 협력업체 가족들이 함께 모여 행사의 포문을 연 순간, 무언가 뜨거운 만감이 교차했다.

첫 번째 순서는 마술 퍼포먼스 전문 그룹, 그루잠 프로덕션의 '프레젠트' 마술 공연. 마치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듯 마술로 펼쳐지는 공연은 함께 화승온 가족의 혼을 쏙 빼놓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한 마술 공연에 이어 본격적인 MBC 열전노래방이 시작되었다. 언제나 그랬든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김동현 아나운서의 하이 텐션으로 포문을 열었다. 참가자들의 헤어, 메이크업은 물론 백댄서까지 완벽한 무대를 위한 준비가 돋보인 노래방은 참가자 한 명 한 명을 진짜 가수로 만들어 주는 마술을 또 한 번 보여주었다.

각기 다른 매력을 선사하며 끝이 난 무대, 그다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각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연습, 긴장을 했을지 내려오는 그들의 땀을 통해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대기실에서 보이지 않게 연습하며 보여주었던 미세한 떨림들, 프로보다 더 프로다웠던 그들의 무대에 감동이 벅차올랐다. 예상하지 못한 고음에 소름이 돋고 한 템포 느린 춤에 때론 웃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화승 70주년을 기념하는 소중한 추억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이들이 있기에 이들과 함께 70년이라는 시간을 이어온 화승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그런 날이었다.

소울풀하면서도 파워풀한 노래로 좌중을 흔들었던 발라더 화승R&A SL생산기술팀 최현출 기능사원의 대상은 어쩌면 모두의 고개가 끄덕여지는 당연한 결과처럼 다가왔다. 플라이투더스카이의 '남자답게'는 마치 추억 여행을 떠난 듯 귀 호강하는 순간이었다. 부회장님 특별상의 주인공은 바로 구수하게 '진또배기'를 불러준 화승R&A SL영업팀 용또배기 김용섭 선임이었다. 시원시원하게 부르는 모습이 마치 가수 이찬원을 보는 듯 남달랐다. 또 한 명의 특별상은 바로 화승T&C FL생산팀 박근명 기능사원.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열창한 그는 우쿨렐레를 소품으로 활용해 모두에게 흥겨운 재미를 선사했다.

최우수상으로는 화승R&A 경영지원팀 서인원 선임. 나훈아의 '사내'를 구수하게 열창한 그는 가창력은 물론 특유의 무대 매너로 모두의 박수를 받는 감동의 순간을 연출했다. 유일한 여성 수상자로는 우수상을 받은 화승R&A 경영지원팀 임다혜 사원.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를 열창한 그녀는 마치 서바이벌 오디션장에서나 볼 법한 열창으로 현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인기상에 가까운 아차상은 화승R&A 브레이크설계팀의 이민수 기능사원이 차지했다.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을 열창한 그는 특유의 반 박자 느린 댄스로 모두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수상하지 못한 다른 참가자들 역시, 한 명 한 명 빛이 나는 무대를 만들어 주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경품 추첨! 회사에서 준비한 대형 TV를 시작으로 양문형 냉장고(회장 협찬), 스마트 워치, 휴대폰(부회장 협찬), 김치냉장고(김형진 대표 협찬), 백화점 상품권(허성룡 대표 협찬), 무선청소기(박창호 노조위원장 협찬), 무선이어폰(화승R&A 팀장회 협찬), 화승네트웍스에서 협찬한 갈비 세트까지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대동단결해 결과를 지켜봤다. 행사 중 스팟으로 추첨을 진행하며 대망의 마지막 경품 추첨의 순간, 추첨 번호가 호명되자 환호와 축하, 아쉬움이 뒤섞인 축제의 장이었다. 당첨되지 못했어도 당첨자를 축하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를 마무리하는 장관이 연출되는 순간이었다.

노사가 함께 서로의 어깨를 마주하며 화승의 70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만들어 낸 뜻깊은 행사였다. 손바닥을 마주치며 앞으로 더 멋진 100년을 만들어 가자는 공감을 모두 함께 마주한 순간이었다. 행사를 준비한 모든 분, 그리고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분들께 고마운, 그야말로 마술 같은 날이었다. 70

“화승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황성제·윤진석·심승보, 그리고 김수환 작가 초대전

부산 연산동 화승 사옥 2층 스페이스 장천에서
‘오는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한다는
뜻의 환영 모임 전시회가 열렸다.
지난 10월 17일(화)~27일(금)까지 펼쳐진
<환영회展>이다. 전시 타이틀에서부터
밝은 에너지와 긍정의 메시지가 묻어난다.

특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전시회는 화승이
‘발달장애 작가들을 환영한다’는 뜻이자,
작가들이 ‘화승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고맙다’라는
의미를 담은 기획 전시였다.

글 편집실 사진 손호남

화승은 오랫동안 문화예술 분야에 후원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연대하기 위해 세상의 편견을 깨고 일어선 발달장애 청년작가 3인(황성제·윤진석·심승보)을 화승의 일원으로 채용했다. 이제부터 이들은 ㈜화승코퍼레이션 소속의 아티스트로 작품 활동을 하며 자신들의 예술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첫 출근은 어떤 의미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일원으로서 첫 순간은 어떻게 맞이할까. <환영회展>은 발달장애 작가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건네는 자리이자 화승인으로서의 출발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화승 소속이 된 작가들로는 시계를 테마로 작업하는 윤진석 작가, 자연과 동물, 환경에 진심인 심승보 작가, 로봇작가로 이미 이름을 알린 황성제 작가다. 이외에도 이번 전시회에는 화승의 사회공헌활동 파트너인 WATA(세계예술치료협회)가 발굴한 나비 작품으로 유명한 김수환 작가까지 초대해 특별 환영 전시가 되었다.

"화승으로 온 걸 환영해, 고마워 화승직원이어서"라는 전시 포스터 문안에서도 느낄 수 있듯, <환영회展>에는 화승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평소 작가들의 작품을 좋아하고 지지해 온 팬들,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에게서 환호는 물론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받았다. 이 출발의 순간을 계기로 청년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으로 더 크게 이름을 빛내고, 자랑스러운 화승의 일원으로도 잘 자리매김하기를… 다시 한 번 전해본다. "윤진석·심승보·황성제 작가님~ 화승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0

시계를 테마로 작업하는
윤진석 작가

어릴 적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 새로운 환경, 사람들과의 눈맞춤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간에 가면 늘 시계를 보면서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시계들은 나에게 안정과 치유의 기운을 북돋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연과 동물, 환경에 진심인
심승보 작가

지구 구석구석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물에 관한 기사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좋지 않습니다. 동물이 살기 힘든 곳은 사람도 살기 힘든 곳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작로봇의 황제
황성제 작가

나는 로봇작가입니다. 저만의 창작로봇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하다가 재밌거나 멋진 장면을 보면 로봇친구가 생각나고 그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모습을 그리고 싶어집니다. 나에게는 작은 로봇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친구이며 나만의 세상입니다.

화승 온 가족이 마술에 걸린 어메이징 데이

화승 70주년 송년 인사를 1주일 앞둔 12월 9일 토요일 오후.
화승 가족들이 영화의전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루잠 프로덕션의 미스터리 퍼포먼스 마술 공연
'스냅(SNAP)'을 관람하는 날이었다.
그룹웨어를 통해 함께한 부산, 경남의 화승 임직원 가족들로
1, 2층 600석을 꽉 채운 마술 같은 날,
그 어메이징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글 김병호 그룹홍보실장 사진 손호남

수많은 예술 장르 중에서 '마술이라고?' 의아해하겠지만 마술도 엄연한 하나의 퍼포먼스 예술이다. 우리네 고착된 생각을 불식시키는, 마술도 예술임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공연단체 그루잠 프로덕션과 함께하는 날, 기업과 예술단체의 메세나 사업으로 화승과 그루잠 프로덕션, 영화의전당이 함께 주최하며 임직원들과 복지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예술적 교감을 나누는 행사로 '스냅' 공연이 마련되었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개최한 이번 공연은 부산메세나협회의 예술단체 기업 결연 지원사업에서 화승과 그루잠 프로덕션이 1:1로 매칭되어 성사되었다. 이것은 기업이 결연한 예술단체에 후원하는 금액에 비례해 국고보조금을 최대 100%까지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그루잠 프로덕션이 제작한 '스냅<SNAP>'은 온 가족을 위한 마술 기반 복합장르 공연으로 현재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아시안 아츠 어워드 대상을 시작으로 '공연계의 칸'이라 불리는 캐나다 시나르 비엔날레에 공식 초청돼 호평받았으며,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3주간 10,500여 장의 티켓 판매(95.8%)를 달성해 뉴욕 타임스에도 비중 있게 소개된 바 있다.

하루 두 차례 공연으로 2시에는 전석 화승 임직원들을 위해 5시 공연은 외빈과 사회복지 기관을 초청해 진행되었다.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 굿모닝사회적협동조합,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사회공헌정보센터 관계자 등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한 뜻깊은 시간이자, 그 자체로 마술 같은 시간이었다.

노쇼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임직원들의 참여율이 높았던 행사로, 자칫 3층 객석까지 배정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이어졌다. 다행히 딱 맞게 1, 2층 객석을 꽉 메운 두 타임의 공연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 화승, 프로덕션, 영화의전당에도 더없이 뿌듯하고 보람 가득한 날이었다.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 더 기쁜 순간, 바로 이것이 메세나의 진정한 의미이자 가치 아닐까. 70

SNAP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술쇼와 달리 마임, 쉐도우그래피, 미디어아트, 블랙아트 등을 마술과 결합한 무언극(Non Verbal). 수많은 복선을 통해 스토리를 풀어가는 미스터리적 요소와 장면마다 관객을 몰입시키는 서스펜스 구조로 짜여 있다. 신기한 현상과 다양한 장르를 더해 초현실주의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말이 필요 없는 무언극이라는 특징으로 국적과 남녀노소를 떠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소통왕 영조와 정조, 글과 그림으로 탕평하다

「탕탕평평蕩蕩平平 – 글과 그림의 힘」

18세기 조선 후기 르네상스 시대를 연 영조와 정조 임금은 개혁 군주로 꼽힌다. 왕위 정통성 시비와 당쟁 등 불리한 상황에서 두 임금은 어떻게 정국 주도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시켜 나갔을까. 국립중앙박물관이 마련한 특별전 「탕탕평평蕩蕩平平 - 글과 그림의 힘」을 방문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조선 최고 권력자가 글을 쓰고
당대 최고의 화원들에게 그리게 한 그림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2024년 영조(英祖, 재위 1724~1776) 즉위 30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전 「탕탕평평蕩蕩平平-글과 그림의 힘」을 개최한다. 영조와 정조(正祖, 재위 1776~1800)가 '탕평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 '글과 그림'을 활용해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주목하는 전시다. 전시는 국보 1건, 보물 11건을 포함해 18세기의 글·그림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조와 정조가 쓴 어필(御筆)과 두 임금의 의도를 반영해 제작된 궁중행사도 등 18세기 궁중서화의 화려한 품격과 장중함을 대표하는 54건 88점이 선보인다.

영조와 정조가 탕평을 이루고자 글과 그림을 활용한 방법에 주목하는 이 전시는 4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 '탕평의 길로 나아가다'는 글과 그림으로 탕평의 의미와 의지를 전하는 서적과 그림을 전시한다. 특히 영조가 자신의 국정 운영 방침을 널리 알리고자 서적을 간행한 일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소통 방식이다. 더 나아가 영조는 한글로 풀어쓴 언해본을 제작해 일반 백성에게까지 임금의 뜻이 전해지도록 노력했다.

제2부 '인재를 고루 등용해 탕평을 이루다'는 영조와 정조가 글과 그림으로 지지 세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임금의 마음을 신하에게 친밀하게 전하는 시를 쓴 어필, 은밀하면서 명료하게 업무를 지시한 비밀 편지를 전시한다. 또한 신하의 스승을 자임할 정도로 학문 수준이 높았던 정조가 주자를 존숭한 일면을 김홍도가 그린 <주부자 시의도>로 보여준다.

제3부 '왕도를 바로 세워 탕평을 이루다'에서는 영조와 정조가 '효'와 '예'를 내세워 정당한 왕위 계승자임을 강조하는 상황을 다룬다. 영조는 원로대신 모임인 기로소(耆老所) 입사 기념 그림에서 자신과 사도세자의 자리를 나란히 배치해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제4부 '질서와 화합의 탕평'은 정통성 문제로 분열되었던 정치권 통합을 이룬 정조가 1795년 화성에서 개최한 기념비적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화성원행도> 8폭 병풍에는 왕을 중심으로 신하들이 질서를 이루고 백성은 편안한 이상적 모습이 구현되어 있다.

이렇듯 영조와 정조, 두 개혁 군주들은 콘텐츠의 힘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 의도와 고민을 전시장 안을 가득 메운 글과 그림들이 보여주고 있다. '소통왕' 두 임금은 300년 후 훨씬 소통 수단이 많아진 지금의 우리에게 묻고 있다. "그대들은 제대로 소통하고 있느냐…"고.

「탕탕평평蕩蕩平平 – 글과 그림의 힘」

전시기간 2023.12.8.(금)-2024.3.10.(일)
전시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실
관람시간 월-금요일, 10시-18시(신정, 설 당일 휴관)
관람요금 5,000원
예 매 처 티켓링크, 네이버, 예스24

글 김지원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임미옥

〈삽살개〉, 1743년, 그림: 김두량, 글 글씨 영조, 종이에 엷은 색, 35×45cm,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柴門夜直 사립문을 밤에 지키는 것이
是爾之任 너의 일이거늘
如何途上 어찌하여 길에서
晝亦若此 낮에 이같이 짖고 있는 게냐
癸亥 六月 初吉 翌日 金斗樑圖.
계해(1743년, 영조 19) 6월 초하루 다음날 김두량이 그리다

전시장 <삽살개> 그림 앞에 서면 옆의 어제시가 반복해서 울려 퍼진다. 마치 영조가 바로 옆에서 우리 시대의 불통을 꾸짖는 듯하다. 영조의 글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음성의 주인공은 얼마 전 인기 사극에서 영조를 연기한 이덕화 배우이다.

탕평과 소통의 에너지 군왕과 화원의 시너지

국립중앙박물관 「탕탕평평蕩蕩平平-글과 그림의 힘」 특별전시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전시품은 김두량(金斗樑, 1696-1763)의 <삽살개>이다. 이 작품은 김두량이 1743년 그린 삽살개 그림과 영조 임금이 쓴 화제(畫題)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당대에 제작된 제가명품화첩(諸家名品畵帖)의 머릿그림이었으나 세월을 거치며 따로 떼어져 족자로 만들어졌다.

김두량은 조선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화원 중 한 사람이다. 그의 그림은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개그림' 하면 김두량으로 통할 만큼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던 화원이었다. 그 실력만큼 영조의 총애를 받아 남리(南里)라는 호를 직접 하사받았을 정도였다. 그리고 군왕이 직접 화원의 그림에 글귀를 남길 만큼 가까운 사이였음도 짐작할 수 있다.

서로 속내가 통하는 왕과 신하의 콜라보가 남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 보자. 털이 복슬복슬한 점박이 삽살개가 눈을 부릅뜨고 공중을 노려본다. 송곳니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표정이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하다. 화가가 가는 붓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움직이는 털의 흐름을 한 올 한 올 표현하면서 명암까지 살렸다. 참 명불허전이다.

삽살개가 유독 사납게 표현된 이유는 그림에 영조가 직접 쓴 시에서 알 수 있다. "사립문을 밤에 지키는 것이 너의 일이거늘 어찌하여 길에서 낮에 이같이 짖고 있는 게냐." 영조가 탕평책을 반대하는 신하들의 모습을 아무 때나 짖는 삽살개에 비유하며 꾸짖는 그림인 것이다. 영조가 노론 중심의 사헌부와 갈등하던 시기에 그려진 작품으로, 당시 사헌부는 영조의 국왕 중심 정치를 비판했다. 눈을 부릅뜨고 이빨을 드러낸 삽살개는 영조의 탕평을 반대하는 신하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끼는 화원의 그림에 슬쩍 자신의 깊은 마음을 써넣은 임금. 아마도 <삽살개> 그림을 마주한 두 사람은 서로 알 듯 모를 듯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 생동감 넘치는 그림만큼 영조와 화원이 함께 화폭을 채운 스토리가 흥미롭다. 그간 책으로만 소개되다가 일반 공개는 이번 전시가 처음이다. 유쾌상쾌통쾌한 소통으로 만사형통한 새해를 기원하며, 꼭 한번 관람하길 권해본다. 70

1

2

1 영조의 강한 탕평 의지를 담은 김두량의 <삽살개>로 제작된 전시회 굿즈 아트프린트

2 전시회 개막 다음 날인 12월 9일, BTS RM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삽살개>. 좋아요 개수 6,554,636(12월 28일 기준)

최고의 영화들과 함께한, 2023 제32회 부일영화상

‘국내 최초의 영화제’라는 명성에 빛나는 제32회 부일영화상 시상식이 지난 10월 5일(목) 시그니엘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누가 받아도 손색없는 훌륭한 연기력의 배우들과 작품으로 본심 막판까지 각고의 치열함이 있었다고 한다. 최고의 영화들과 함께한 시상식 현장을 담아보았다.

글 편집실 **사진** 손호남

부산일보사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와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후원하며, 화승이 협찬하는 2023 제32회 부일영화상 시상식이 지난해에 이어 시그니엘 부산 그랜드볼룸에서 실시되었다.

본격적인 시상식에 앞서 명실공히 ‘연기神’이라 불리는 이병헌을 비롯해 안방극장에서 스크린으로 외출한 김서형, 국민여동생 박보영, 다양한 채널에서 종횡무진하는 도경수, 부산 출신 배우 김종수, 팔색조 연기 꽃을 피우고 있는 고민시 등-수상의 영광을 안게 될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밟았으며 전년도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핸드프린팅 행사도 펼쳐졌다. 점토에 손바닥을 찍어 동판으로 제작, 영구 보존될 핸드프린팅에는 2022년 수상자인 배우 박해일, 변요한, 이수경, 이효제가 참여했다.

2023 제32회 부일영화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2023년 8월 10일까지 1년 동안 개봉한 한국영화 222편 중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 총 16개 부문의 수상자를 가린 것으로 이번엔 특히 최우수작품상과 최우수감독상 심사가 치열했다. 최우수작품상 후보에는 <다음 소희>, <밀수>, <올빼미>, <콘크리트 유토피아>, <탑>이, 최우수감독상 부문에는 류승완(밀수), 엄태화(콘크리트 유토피아), 임순례(교섭), 정주리(다음 소희), 홍상수(탑)가 경합을 벌였다.

부문별 수상자가 호명될 때마다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가 터져 나와, 장내는 그 어느 때보다 시상식다운 풍경을 자아냈다. 이변에 가까운, 주목할 만한 결과도 발표되었다. 특별한 후보 없이 심사위원장 유지나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를 비롯해 총 9명으로 구성된 본심 심사위원단의 추천으로 결정되는 유현목영화예술상이다. 그동안 영화감독과 프로듀서, 제작사 대표에게 수여되었던 이 상이 배우에게 돌아갔다. 배우로서 최초의 수상자가 된 배두나는 “진심으로 영광스럽다”는 인사와 함께 “감독님, 스태프들, 배우들, 영화팬분들,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해왔다.

대한민국 영화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라성 같은 배우들과 K-컬처, K-시네마를 만들어 내는 명감독들의 명작품들,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영화를 책임질 신성들의 대향연이었던 제32회 부일영화상 시상식. 1958년 시작된 국내 최초의 영화상답게 많은 영화팬의 관심과 호응, 이슈와 이변으로, 그야말로 살아있는 영화계 현장이었다. 70

2023 부일영화상 수상작 및 수상자

최우수작품상	<콘크리트 유토피아>
최우수감독상	정주리 <다음 소희>
남우주연상	이병헌 <콘크리트 유토피아>
여우주연상	김서형 <비닐하우스>
남우조연상	김종수 <밀수>
여우조연상	고민시 <밀수>
신인 감독상	이지은 <비밀의 언덕>
신인 남자연기상	김선호 <귀공자>
신인 여자연기상	김시은 <다음 소희>
각본상	김세인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촬영상	조형래 <콘크리트 유토피아>
음악상	달파란 <유령>
미술/기술상	진종현 <더 문>
유현목영화예술상	배두나
남자 올해의스타상	도경수 <더 문>
여자 올해의스타상	박보영 <콘크리트 유토피아>

HWASE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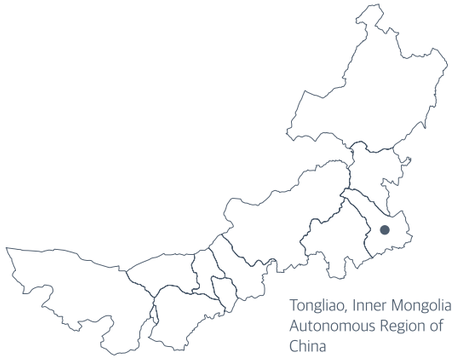
Shooting

04

글로벌 ESG의 시작,

내몽골 통료에 생명을 심는 화승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수 덕목인 사회, 더 이상 기업은 이윤추구에만 그 목적과 가치를 둘 수 없게 되었다. 기업시민으로서 국가, 지역, 단체 등과 어우러져 긴 호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래서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가 기업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로 작동하고 있다. 내몽골에서 비재무적 요소인 ESG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있는 화승의 지속적인 활동상을 점검해 본다.



신발 생산을 넘어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내몽골은 역사와 문화, 사막과 오아시스가 얽혀 있는, 오래되고 신기한 땅이며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독특한 기후로 웅장한 경관을 자랑한다. 하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토지의 모래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에 의해 모래가 쌓이면서 비옥한 땅이 황사에 침식되어 지방 정부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의 내몽골 통료시에 화승엔터프라이즈 HWT(장천제화통료유한공사) 공장이 위치해 있다. 그동안 화승이 통료시에서 이룩한 성과는 좋은 품질의 신발 생산에만 국한한 게 아니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매년 모래 먼지의 위협을 받는 땅에 작은 힘이나마 조림(造林) 작업에 참여해왔던 것이다. 이것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이나 환경에 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몽골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역민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되었다.

우리 화승의 목표는 분명하고 확고했다. 바람과 모래를 막아 이 고대의 땅이 푸르름을 회복하고, 통료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가져다주기 위함이다. 봄바람이 불 때마다 우리 직원들은 때를 맞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대지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모든 나무, 모든 녹색은 이 땅 주민들이 원하는 바이자, 미래 세대에게 더 좋은 터전을 물려주기 위함이다.

글·사진 유입군(Liu li jun) 화승엔터프라이즈 HWT(장천제화통료유한공사)

화승, 내몽골 통료
사막 녹화 사업을 펼치다

멀리 동해안에서 광활한 내몽골 대지까지 HWT는 도전과 기회로 가득한 여정에 나섰다. 통료시에 진출한 이래, 화승은 절묘한 기술, 우수한 품질, 예리한 시장 통찰력으로 고객의 신뢰를 빠르게 얻었으며 마침내 신발 업계에서 탁월한 평판까지 얻었다. 이 광활한 땅에 1,000명 이상의 직원이 모여 신발 산업의 명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화승은 먼저 근무환경과 분위기에 초점을 맞췄다. 직원들에게 편안하고 긍정적이며 활기찬 근무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통료 작업장에는 현대적인 관리와 설비도 갖췄다. 직원들의 건강뿐 아니라 성장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직원 개개인이 나름의 창의력과 재능을 발휘해 회사와 함께 하는 미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HWT(장천제화통료유한공사)는 단순한 신발 제조 업체가 아니다. 녹색 생태, 지속 가능한 발전 이념을 가진 미래 지향적 기업이다. 이 이념은 제품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회사의 구석구석 모든 결정에 반영되어 있다. 화승의 진정한 성공이 단순히 경제적 이득이 아닌, 사회와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에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신념과 행동으로 일상 업무에서는 친환경적, 생태적 사고방식을 더욱 중시하게 하며, 지구의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한다.

환경 보호뿐 아니라
환경 인식 고취에 기여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생태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내몽골, 활력과 녹음이 가득했던 이 땅은 현재 황사에 시달리고 있다. 모래화 가속은 육안으로 확인될 만큼 심각한 상태다. 매년 봄날의 황사는 지역 농업, 생산, 교통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 모든 결과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환경 보호의 시급성을 알리는 생태적 경종이다. 심각한 생태환경에 직면했음을 인식한 화승은, 기업으로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지역의 생태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기업의 번영은 지역사회의 환경 및 지역민의 건강과 분리될 수 없다고-생각해왔다. 화승이 내몽골 통료 조림 사업에 앞장선 이유다.

화승은 매년 직원들과 나무 심는 곳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수천 개의 묘목을 심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통료시의 환경 개선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과 개인들에게 환경 의식을 고취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을 함께 지켜내자는 마음을 담고 있다.

화승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에 대한 약속

점점 세계화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은 주주를 위해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화승은 창립 이래, 사업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환경과 사회 복지에 해롭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화승은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건강하고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사회와 생태환경에 달려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화승엔터프라이즈는 항상 비즈니스 전략과 사회적 책임을 완벽하게 결합하기 위해 노력하여 제품 개발 및 생산과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활동에도 이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의무적인 나무심기 활동을 통해 내몽골의 생태환경에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안겨 주었다.

화승엔터프라이즈는 미래를 내다보며 앞으로도 일련의 환경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조림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리고 청정 에너지, 순환 경제, 녹색 공급망 등 생태 및 환경 보호 관련 프로젝트들도 모색 중이다. 우리의 목표는 2028년까지 화승의 탄소 발자국을 오늘날의 절반으로 줄여, 탄소 중립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화승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약속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기업 문화와 일상 운영에 깊이 녹아들어 있다. 더 많은 파트너, 공급자, 소비자와 함께 더 친환경적이고 건강하며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화승이 되길 기대한다. 70

8년의 기록 HWT의 의무적인 나무심기 과정

2016년 화승, 사회적 책임감으로-자연환경 보호 및 통료시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녹색 대계획인 '의무적 나무심기 캠페인' 시작

2017년 통료시 근교 부지면적 3.1만㎡-7만 그루 묘목을 키울 수 있고 30만㎡의 묘목 조성 가능한-에 묘목 육성기지 조성으로 조림 활동

2018년 과좌후기 사막지에 공익 나무심기 활동 지속, 현석호 부회장의 행사 참여로 크나큰 지지와 호응을 얻었으며 당시 300그루의 녹나무 식재

2019년 화승엔터프라이즈 이계영 사장, HWT 박준병 부사장 등 경영진의 참여로 3,000그루 식재, 해당 지자체로부터 찬사 및 명예의 깃발 수여받음

2021년 코로나19 안정화로 나무심기 활동 재개, 과좌중기 공익림에서 3,000그루의 버드나무 식재 및 지속적 녹색 희망을 위한 투자 노력

2022년 3,000그루 버드나무 심기 및 공장 내 공지에 3,500그루의 버드나무 묘목을 재배하여 2년 후에 과좌중기 공익림에 이식할 계획

2023년 화승 창립 70주년 맞아 과좌중기 공익림에 버드나무 3,000그루 식재, 90%에 달하는 생존율로 나무심기 경험과 기술력 발휘

지역민을 위한 이동식 병원,

무료 의료 차량 지원한 화승인도HSI AUTO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이자 인구 대국인 인도의 타밀나두주 첸나이에는 HSI AUTO(화승인도)가 있다. 지난 1997년 설립된 HSI AUTO는 현지 동종업계를 선도하는 생산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으로 현지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서남아시아, 유럽 시장을 향한 교두보 역할까지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이곳에 아주 특별한 CSR 활동이 펼쳐져서 화제다.

지난 9월 22일 인도 사비타 의과 대학(Saveetha medical college)이 있는 탄달람에서는 그동안 HSI AUTO가 추진해 온 이동식 병원(무료 의료 차량) 프로젝트 착수에 따른, 차량 인도 행사가 있었다. 로터리 그린시티, 사비타 병원과의 협업으로 완수한 HSI AUTO CSR 프로젝트다. HSI AUTO는 의료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티루발루르, 첸나이 및 칸치푸람과 같은 공장 부지 주변 지역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하고 질 좋은 의료혜택으로 삶을 개선하고자 직접 나섰다.

HSI AUTO가 지원한 이동병원 차량에는 디지털 엑스레이 기계는 물론 초음파 검사, 심전도, 혈액검사, 간 기능 검사 등 다양한 의료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현대적 장비와 의료진, 그리고 잘 훈련된 전문 인력들이 갖춰져 있다. 이 차량은 '이동식 병원, 모두를 위한 의료 서비스 여정(Mobile Hospital: A Journey Towards Healthcare For All)'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민들을 위한 운행을 시작했다.

이번 CSR에 참여한 전현호 법인장은 "본 프로젝트인 이동병원은 우리 공장과 주변 지역의 빈곤층,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돌보기 위한 것"이라며 "사비타 병원, 로타리 그린시티와 함께 참여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에 사비타 총장인 N.M.베라이안 박사는 "의료 차량 서비스를 받고 추후 치료가 더 필요할 경우, 병원으로 이송해 무료 치료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라고 화답했다.

HSI AUTO의 이러한 움직임은 회사의 핵심가치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며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사비타 병원에 의료 장비 기증을 통해 HSI AUTO는 기업시민의 노력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긍정적 변화를 다시 한번 체감하고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 기업시민으로서 화승의 사회공헌활동은 인도에서도 멈춤 없이 움직이고 있다. 70

편견을 넘어

꿈을 키우고,
그리다

화승 꿈틀 프로젝트 <함께 꿈틀> 수료식 및 전시회가 열렸다. 화승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청년기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진행된 사회공헌 프로그램 <함께 꿈틀>의 6기 수료식을 지난 12월 16일 화승 부산 사옥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수료식은 수료증 수여를 비롯해 교육과정 및 성과 공유, 각 분야별 프로그램 체험이 진행됐고, 참가자들의 작품은 화승 사옥에 20일까지 전시되었다.

화승 꿈틀 프로젝트 <함께 꿈틀>은 장애인, 저소득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화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화승 임직원 봉사자 5명과 복지관 이용자(장애인) 5명까지 총 10명이 참여했다. 화승 임직원 봉사자와 복지관 이용자는 1:1로 매칭되어 스마트팜 프로그램과 포슬린아트 교육 과정을 4개월간 함께 진행하였다.

글 심일욱 그룹홍보실 선임 **사진** 송원준 그룹홍보실 인턴

'청년농부'로 명명된 함께꿈틀 스마트팜 프로그램은 각종 식용 식물 재배 과정을 배우고 휴대용 재배기를 통해 직접 작물을 길러보는 한편, 참가자들이 함께 요리하며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교육 기관으로 참여한 올치그로우(대표 정순영)는 부산 거제해맞이역 공간에 마련된 스마트팜 교육 시설에서 청년농부 참가자들의 성장을 견인하는데 한몫을 담당했다.

'꿈을 그리다'팀은 함께꿈틀 포슬린아트 프로그램 팀으로 찻잔, 접시 등 도자기에 직접 그림을 그리며 나만의 작품만들기를 진행하였다. 교육을 진행한 ㈜그리다 김시안 대표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만든 작품에 장애라는 편견은 따로 없었다"며 참가자들의 작품들을 높이 평가했다.

<함께 꿈틀> 수료식에 참석한 화승 김정식 상무는 "함께 꿈틀은 단순한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봉사자와 수혜대상자 모두가 성장하는 일석이조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사회공헌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승희 관장은 "이번 함께 꿈틀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기 발달장애인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이들의 자립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승 꿈틀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단순 기부형 사회공헌 활동과 달리 임직원 봉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고취시키고,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진정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자립'이라는 명확한 니즈를 잘 반영해 성공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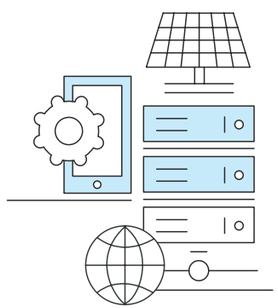
HWASEUNG NEWS

화승네트웍스,
SK지오센트릭(중국)과 업무 제휴 양해각서 체결

지난 11월 14일 ㈜화승네트웍스와 SK Geo Centric International Trading(shanghai) Co.,Ltd(이하 SK지오센트릭)는 친환경 소재 협력 개발 및 제품 공급 등 리사이클링 사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업무 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화승 본사가 있는 부산 연산동 장천빌딩 3층 리셉션룸에서 진행된 MOU 행사에는 화승네트웍스 박동호 대표를 비롯해 이승환 상무, 박세웅 팀장이 참석했으며 SK지오센트릭에서는 장남훈 본부장, 김우성 실장, 이영창 지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MOU 체결의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소재 공동 협력 및 협업(2025년 울산지역에 SK ARC(Advanced Recycle Cluster) 공장 준공 예정, 열분해 공정에 따른 폐플라스틱 및 카본블랙 생산 예정) ▷TPV용 원자재 EPDM, PP 협업 개발 ▷EPDM 물량 확대 및 판권 확대를 통한 시장 개발(한국, 중국을 포함한 해외 개발선들은 SK 협조하에 고객 및 시장개발 진행)이다. SK지오센트릭(중국)과의 MOU 체결이 완료됨으로써 양 사는 제휴 업무의 이행과 상호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화승코퍼레이션, KOMERI
양산 '친환경하이브리드기술센터'에 기술협력

화승코퍼레이션(대표 허성룡)은 지난 11월 17일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과 상호 기술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남 양산시 지원으로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 실증 기반 조성 사업('22~'26)'의 일환으로 설립된 KOMERI 경남본부 친환경하이브리드기술센터와 협력하게 된다. 화승코퍼레이션은 이날 KOMERI와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양 기관의 전문 보유 기술을 소개하고, 기관 간 협업 추진 실무진 구성 및 기술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력사업으로 △선박용 차세대 방산 제품 △수중용 특수 씰 △해양플랜트용 탄성 베어링 △마운트 등 고부가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허성룡 대표는 "화승코퍼레이션은 일찍이 ESG 경영 일환으로 친환경 미래산업에 대한 소재 및 기술 개발에 힘써 왔으며, 특히 재활용, 바이오 원료 개발에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며 "이번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인 해양산업에서 중대형 선박용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 개발에 공동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기술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화승,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에 기부금 전달

화승(회장 현승훈)은 지난 10월 12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지회장 박동호)에 환아 치료를 위한 기부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 2003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의 정식 개소 때부터 20년째 지원해 온 화승은 '사랑의 보금자리(쉼터)', '사랑나눔걷기대회', '천사의 날' 행사 등 환아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후원 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박동호 부산지회장은 "화승의 든든한 20년 동행 덕분에 환아들의 꿈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화승, 양산부산대병원에
발전 후원금 총 5억 원 10년간 기탁

지난 10월 24일 화승(회장 현승훈)은 화승R&A 김형진 대표와 양산부산대병원 이상돈 병원장, 이승철 발전후원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발전을 위해 양산부산대병원에 발전 후원금 총 5억 원을 10년간 기탁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서 김형진 대표는 "양산부산대병원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의료기관 중 하나로 지역 의료 발전이 시민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복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 기탁을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
테크기업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시그니처가 되다

중국 대련에 위치한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신발 생산 현장인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가 자동화 라인 강화를 통해 테크기업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중국에서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인 HS PUR은 인건비가 높아진 중국에서 품질에 기반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라인이다. 복잡한 공정은 확 줄이고 자동화를 실현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설비로 기존은 컨베이어가 독립형이라 별도 공정이 필요하지만, HS PUR은 결합형으로 추가 프로세스 및 대기시간이 불필요한, 그야말로 자동화 공정의 핵심 라인이다. 투자 대비 7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필요한 설비를 용도에 맞게 설계해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설비를 직접 만들 수 있다. 기계만 구매해 타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하는 제품이 아닌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만의 독창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전용 설비와 기구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원 보충보다는 현재 직원들을 중심으로 자동화 공정을 실현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전 부서가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 테크기업 화승엔터프라이즈의 시그니처로 자리잡았다.

화승,
100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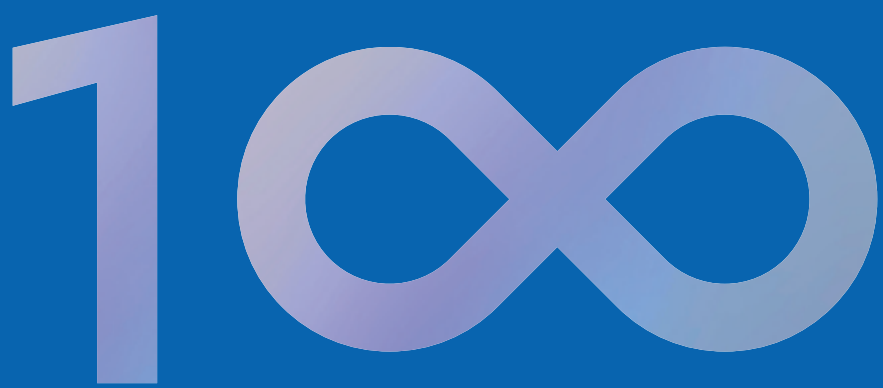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HWASEUNG.
신사 숙녀 여러분, 화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70년 화승’이란 별은
우주의 시간에 맞추면 방금 갓 태어났을 뿐이고
지구 시간이라면 이제 막 성장판이 열렸을 뿐입니다.

화승 100년을 향하여~
인화를 탑재한다면 성장 가속도까지 붙어
‘100년 화승’에서 빛나게 웃을 수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70년 딛고 100년으로!

From now on,
you’re moving toward the 100th anniversary of HWASEUNG.
이제부터 여러분은 화승 100주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HWASEUNG